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된 평화와 희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6개 복음주의 연합이 가자 지구의 휴전을 촉구하며 하마스를 규탄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16개의 복음주의 연합과 단체들이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11월 1일에 발표한 애도, 회개, 정죄의 성명서는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 지역에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정의로운 평화 만들기를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공감과 겸손을 실천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단체는 명시했다. “평화는 폭력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복수에 대한 죄악된 욕망에서 벗어날 때 달성될 수

것을 회개하며, 국제 인도법을 ‘존중’하지 않은 국제 사회를 규탄했다. 그러나 인도와 라틴 아메리카의 WEA가

게 정의, 평등, 번영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어떤 민족 집단도 안보를 달성할 수 없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분쟁

남아프리카 동맹은 과거의 죄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 복음주의 연맹의 모스 은틀라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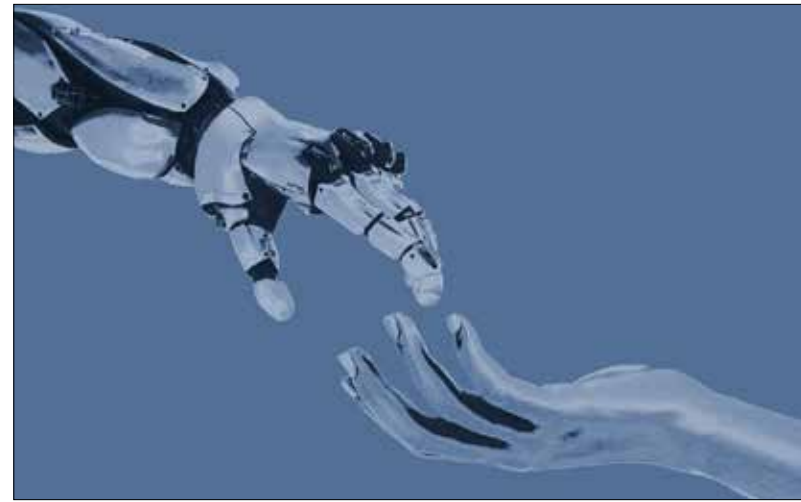
‘정의로운 평화’ 를 추구하는 지역 및 국가 연합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유사한 인도주의적 호소보다 성경적으로 더 깊이가 있다.

있습니다.” 중동,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세계복음주의연합(WEA) 지역 협회가 서명한 이번 지지서에는 알제리,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이라크, 요르단, 케냐, 쿠르디스탄, 네팔, 카타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의 대표 기관과 유럽의 아랍어권 연합이 참여했다. 성명서는 지정학적 복잡성과 하나님의 종말론적 목적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애도하고, 평화 조성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발표한 공동 성명서는 전쟁에 대한 다른 기독교인들의 성명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은 지역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동맹국들은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비난하고 하마스에게 모든 인질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으며, “홀로코스트 이후 하루 동안 발생한 최대 규모의 유대인 민간인 학살”을 “개탄스럽고 비열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추격하면서, 더 많은 민간인 사망자를 초래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폭력은 “성지를 모든 사람에

속에 넣어 있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은 이 메시지 때문에 다른 성명서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세계 복음주의 공동체 내의 다양한 관점에 주목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에 동참했습니다”라고 WEA 창립 회원인 인도 복음주의 펠로우십의 사무총장 비제이 시 팔이 말했다.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입장’으로 분류되는 것 이외의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총장은 “아파트헤이트 정부가 한창일 때 전 세계에서 복음주의의 목소리는 거의 없거나 기껏해야 우리의 곁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전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였습니다.” 케냐 동맹은 이스라엘 시민에 대한 잔학 행위를 분명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면으로 계속)



AI,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영혼을 창조하지 못하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마라

감성 지능, 창의 지능, 그리고 최근 들어 “인공” 지능 등,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지능”이 넘치는 세대에 살고 있다. 인공 지능(AI)은 게임 플레이부터 자동차 운전까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컴퓨터 과학의 광범위한 연구 분야이다. AI의 두 가지 주요 하위 분야는 “특정” 형태와 “일반” 형태이다. 특정 AI 기술이 특정 작업에 참여하는 인간을 모방하는 시스템(예: ChatGPT)인 반면, 일반 AI는 보다 광범위하게 생각, 언어 및 행동에서 인간을 모방하려는 시도이다(예: Star Trek 속 Data 역할인 The Next Generation). 이제 ChatGPT 같은 특정 AI 도구가 사회에 출시되었으므로 “기계 학습”이라는 용어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는 특정 또는 일반적인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을 “학습”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술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매우 흥미로운 시기이다. 많은 사람은 AI 기술이 과거 인쇄기(계몽주의 시대), 연소 엔진(산업 시대), 그리고 컴퓨터(정보 시대)만큼 사회를 바꾸어 놓을 거라 예상한다. 일반 은총 또는 현실 속 터미네이터?

단지 도구로만 볼 때,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에 대응했던 앞선 그리스도인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AI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한마디로 도구는 선하고 현명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일반 은총에 따라 부여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이다. (9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푸른초장 차석희 목사

4면



신앙에세이 류응열 목사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신앙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마귀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1. 구약주해: 레위기 1:1-9
2. 신약주해: 갈라디아서 2:11-21
3. 논문주해: 팬데믹 이후 주일학교(차세대) 활성화 방안과 전략
4.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사사기 2:1~10 4 제목/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신약 - 골로새서 1:24 제목/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김요섭구약주해.pdf)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4년 3월3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8회 총회기간(5월 21일~24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4년 5월 20일(월)~21일(화)
장소: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제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4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김요섭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0,21)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김요섭 목사 (Rev. Joseph Y. Kim)
주소: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전화: 213-215-8523 / 이메일 laredeemer@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고시부 서기: 김요섭 목사(Rev. Joseph Y. Kim) laredeemer@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김성국 목사
서기: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김요섭 목사

발행인 칼럼

믿음을 보겠느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며칠 전 연말 당회가 있었다. 지난 일 년을 결산하고 다가올 새해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 연말 당회에서는 새해의 교회 표어를 발표한다. 올해는 “언약을 붙잡고 미래로 가는 교회”였고 새해에는 “믿음으로 큰일을 하는 교회”로 정하였다. 이 표어를 정하기에는 정말 믿음이 필요했다. 올해 성도들이 큰일이 많이 해왔기 때문이다. 교단 총회가 본 교회에서 있었고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여러 행사를 진행하느라 몇 달 동안 모임과 연습이 계속되기도 했다. 신교지의 학교와 이곳에서의 다민족 예배당도 완공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기도 하였다. 지쳐 있을 성도들을 향해 “올해는 안식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건네주면 좋겠지만 또다시 큰일을 하자고 말하자니 말하는 필자도 딱했다. 사실 연말 당회를 앞두고 내년도 교회 표어를 몇몇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하(A-Ha)” 하게 되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 14:12) 말씀 가운데 “나를 믿는 자”라는 구절과 “큰일도 하리니”라는 구절이 크게 떠오르면서 필자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그렇다. 믿음으로 큰일을 하자.

내년도에 해야 할 큰일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연말 당회 교회 예배의 본문으로 삼았는데 설교 중에 사도행전 2장 11절을 찾아 읽어 보자고 했다. 다음과 같았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행 2:11)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큰일을 말했다.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저서 “하나님의 큰일 (MAGNALIA DEI)” 서문에서 하나님의 큰일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가 허물어진 곳에 진리를 세우며,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지퍼주는 것이다.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큰일을 제쳐놓고 사람의 작은 일에 몰두하면 안 되리라. 이 일은 믿음만으로 해야 하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탄식이 있으셨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믿는 자’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생활’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믿음은 순간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과업(課業)이 아니겠는가. 그러함에도 주님의 재림 때에 믿음을 사람을 잘 찾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은 충격적이다. 그런데 사실이다. 교인들이 는다고 믿는 자가 느는 것은 아니다. 뜻밖에 믿을 없는 교인이 많은 것이다. 믿을 없는 교인은 실질적 무신론자들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사람이나 물질을 신뢰한다. 믿는 자라 불리지만 정작 믿음이 없으니 소망의 이유를 물으면 엉뚱한 대답들을 쏟아 낸다.

겨울이다. 왜 이리 밤이 길고 추운가. 왜 아무도 연락이 없어 외롭게 하는가. 다시 다가올 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차라리 겨울에 어서 쓰러져 죽는 것이 나으리라. 계절의 마지막 겨울은 인생의 끝자락을 보여준다.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힘든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큰일도 하고 어려움도 이기기도 하여야 하건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아파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니 어찌면 좋겠는가.

번영 복음은 미국 태생이다

번영 복음 지도자들의 미디어 제국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기독교 도서전에 참석한 나는 잔뜩 쌓인 책에서 눈을 땔 수 없었다. 눈만이 아니었다. 내 마음도 그 책들을 탐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책을 정독하는 동안 갑자기 내 눈이 한 곳을 향했다. 바로 내 앞에 놓인 테이블에 조엘 오스틴의 러시아어판 ‘긍정의 힘’이 있었다. 이날 만난 ‘긍정의 힘’은 미국의 번영 복음 설교자들이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심지어 동유럽 등지로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 글에서는 번영 복음의 기원을 간략하게 추적하고 말 그대로 그것이 왜 미국에서 번성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알아보겠다.

신사상이 그 뿌리이다

번영 복음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에서 유행한, 일명 신사상(New Thought)으로 알려진 준기독교 이단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이 철학은 건강과 부를 획득하는 열쇠가 올바른 말을 생각하고 시각화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뉴욕시의 Marble Collegiate Church의 목사 노만 빈센트 필(1898-1993)은 그의 책 ‘노먼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미국에서 신사상 사상과 기술을 대중화했다. 그러나 신사상을 가장 널리 퍼뜨린 사람은 랄프 월도 트린(Ralph Waldo Trine, 1866-1958)이다. 이 두 사람의 글에서는 하나 같이 번영 복음의 반복되는

핵심 요소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즉, 올바른 말을 할 것, 성공을 가져다주는 보편적인 법칙을 말에 적용할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신사상 사상은 특히 전도자이자 목사이며 베델성경연구소의 설립자 E. W. 케넬(1867-1948)에게 영향을 미쳤다. 신학에 접근하는 그의 방식은 번영 복음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 새로운 현실을 가져오기 위해 올바른 말을 하라는 것이다. 당신의 고백이 바로 당신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이다. 케넬은 현대 번영 복음 운동의 기초를 형성한 대중적인 번영 설교자들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1940년대 후반에 오렐 로버츠가 신유와 금전의 번영을 외치며서 해설과같이 등장했다. 1980년대에 그가 진행하는 텔레비전 쇼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비록 로버츠가 확실히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번영 신학을 전파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번영 복음의 가장 저명한 전도자이자 믿음의 말씀 운동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사람은 케네스 E. 해킨(1917-2003)이다.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믿음의 말씀’ 운동은 20세기 후반 미국 전역에 번영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해킨은 1962년에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전도사역을 시작했다. 그렇다고 번영 복음을 전파한 게 해킨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해킨이 전파하는 오염된 교리를 받아들인 많

은 사람이 자기만의 미디어 사역을 시작했다. 예를 들면 해킨의 아들인 케네스 해킨 주니어, 케네스 코플랜드(Kenneth Copeland), 프레드릭 프라이스(Frederick Price), 로버트 톨튼(Robert Tilton), 베니 힌(Benny Hinn), 찰스 캅스(Charles Capps) 및 제리 사벨(Jerry Saville) 등이다.

믿음의 말씀 또는 번영 복음을 대표하는 교단은 없지만 많은 조직이 번영 복음 옹호자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수출한다. 1973년에 폴 크라우치(Paul Crouch)와 쟈 크라우치(Jan Crouch)는 짐과 페이 베이커(Jim Faye Bakker and Tammy Faye Bakker)와 함께 TBN(Trinity Broadcast Network)을 설립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TBN은 현재 세계 최대의 기독교 TV 네트워크이다. TBN은 로드 파슬리(Rod Parsley), 크레플로 달러(Creflo Dollar), 폴라 화이트(Paula White), 케네스 코플랜드, 제시 듀플란티스(Jesse Duplantis), 케네스 해킨 주니어 같은 잘 알려진 건강 및 부를 전파하는 설교자들을 포함하여 번영 신학 교사들이 수백만 명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조엘 오스틴, T. D. 제이크, 그리고 조이스 마이어(Joyce Meyer) 등의 사역을 통해 번영 복음이 다시 한번 인기를 얻고 있다. 2007년에 나온 ‘잘 되는 나’에서 오스틴은 이렇게 썼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또 말하라.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2023년 제25회 홀사모와 자녀 장학금에 함께해 주신 교회와 단체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17)
홀사모 7명(한국포함) 각 \$3500.00 자녀장학금 5명 각 \$1000.00
작년 이월금 및 올해 후원금 금\$47,810.00 지출 29500 내년도 이월금 \$1,831.00
후원자명단
교회, 노회 협의회
미션포인트교회, 임마누엘교회, New Life Church, 충신교회, 버클리시온장로교회, SF참빛교회, 실리온밸리장로교회, 오클랜드연합감리교회, 은혜우리교회, 리치몬드침례교회, 몬트레이제일교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북가주노회, 새생명한인교회, 심포니교회, 이스트교회협회, 소망장로교회, 노스베이장로교회, 세소망교회
단체와 개인
암환우(김정수), Lily M SHIN IRENA STUDIO
개인
Jung K.Smith, 민경호/민명숙, 김에리카, 송태화, 정정숙, 김혁진, 강경옥, 김인숙, 신영애, 김피터, 김창년/김현덕, 김태호/조정희, 배백한, 우규휘, 이기준, 이태희, Chang Song, 조명래/연미, 신태환/신영옥, 윤종대, 이신민, 이영옥, 전지혜, 박규찬/양정옥
버클리시온장로교회 Berkeley Zion Presbyterian Church
주소: 545 Ashbury Ave. El Cerrito, CA
문의: 담임목사 신태환 (510)912-1955

Hisfinger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실시간 진행협의
출판사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상담 견적 계약 이후 모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저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출판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6개 복음주의 연합이 가자 ...

(1면에서 계속)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하마스가 인간 방패 사용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동맹은 모두에게 "인도주의적 사고 방식"을 호소하면서 가자 지구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주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인다: 고통받는 민간인들의 곤경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케냐 복음주의 연맹의 사무총장 넬슨 마칸다가 말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이 성명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싸움을 멈추라는 요구가 쇄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휴전, 휴전, 현재자매 여러분 멈추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했다. "전쟁은 언제나 패배입니다. 언제나." 세계 교회 협의회와 중동 평화를 위한 교회도 휴전을 지지했다. 그러나 영국 성공회는 내부적으로 표현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성 포르피리우스 정교회 옆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후,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영국 성공회 수장, 역주주)는 예루살렘의 총대주교 및 교회 수장들과 함께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했다. 성직자들은 마태복음 25:35(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을 인용하며, 구호 단체를 포함한 구호 기관에 필수 물자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자선 기관에 대해 예배당에서 대피하라는 군부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적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웰비의 영국 교회는 약간 다른 성명을 발표했다.

이사야 2:4(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 하리라)을 인용하며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일시 휴전"을 촉구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했다.

국제 외교에서 의미론은 중요하며, 이러한 문구는 유엔을 분열시켰다.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에서 한 번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한 번은 러시아-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네 번이나 실패한 후, 총회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이며 인도주의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구속력 없는 세 번째 문구를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120대 14의 표결로 통과되었다. 영국은 45개의 기권 표 가운데 하나였다. 하마스 규탄에 대한 캐나다의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미국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일시 휴전"을 지지했지만 "현재로서는" 휴전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비난받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왜 가자인들의 인도주의적 필요라는 한 가지 요구에만 집중하는가?" 유엔 대사가 되물었다. 가족 연구 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은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자마

자 유엔 결의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자 지구로 진격하는 것은 유엔과 전세계 팔레스타인 동조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필로스 프로젝트는 휴전이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하마스 현장 13조를 인용하며 "원칙적으로 평화를 거부하는 당사자와는 평화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정당방위로 보복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죽어가고,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폭력적인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마스를 근절하는 것이 두 국가 해법을 향한 유일한 길이며, 휴전은 유혈 사태를 영속화 할 뿐입니다."

하마스도 이를 인정한다. "알 아크사 사태는 이번이 처음일 뿐이며, 우리에게 싸울 의지와 결단력,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정치국 위원 가자 하마드가 말했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네, 우리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인용했다. "평화를 위한 때와 전쟁을 위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전쟁의 시기입니다"라고 그는 전도서 3:8을 인용하며 말했다. "지금엔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주의 공동 성명서의 유일한 직접적인 성경 언급은 사실 변절 선지자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중동을 위해 기도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며 "오나처럼 무감각해지고 모든 사람을 자신과 화해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단절되지 않도록 말입니다"라고 밝혔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복음주의 연맹의 사무총장 잭 사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의 동맹이 주도하는 아랍권 밖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동맹들이 전 세계 정중 앞에서 "자신들의 이름과 증언을 분명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전 세계적인 지지를 잃었다. 사라는 WEA 내에서 합의를 모색하면서 이 단체의 공식적인 지지는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WEA의 국제 변호 담당 이사인 자넷 엠 버킹엄은 "WEA는 이 지역의 국가 연합체들과 협력하여 우리가 처음 발표한 성명서에 뒤따를 공동 성명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며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복음주의 연맹의 사무총장 대니 콕은 이 성명서에 "동의할 부분이 많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명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공동 성명서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예레미야 6:14을 인용하며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싸매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라고 말한다.

콕은 세 가지 이유로 이 성명서를 비판했다.

첫째,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하마스가 인간 방패로 사용한 민간인의 죽음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한다. 셋째,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는 불균형적인 사상자 비율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에 전가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스라엘은 살상할 수 있는 '종합 면허'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폭력적인 무력"을 사용할 의무는 있다. 이 공동 계획이 이러한 우려 사항들을 해결했다면, 그는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공식화된 성명서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라고 콕은 말한다. "이는 도덕적이지도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대량 학살에 대한 평화주의자의 항복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사상자는 증가하고 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이 이제 '살과 죽음의 문제'라고 말했다. 150만 명에 육박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병원의 3분의 1이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남부 지역의 우물과 담수처리 공장은 연료 부족으로 거의 멈췄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기구 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집단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소수의 호소대"의 입국이 허용된다고 해서 200만 명의 필요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리타스, 크리스천 에이드,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옥스팜과 같은 인도주의 단체들은 휴전을 지지했다. 월드비전은 "모든 당사자에게 필수적인 원조 전달을 긴급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현재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스라엘 당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나라에 많은 원조가 필요하지만, 복음주의 연합의 공동 성명서는 독자들의 관심을 다른 곳의 글로벌 이슈로 넓히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수단,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예멘, 우크라이나-러시아,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투쟁과 그 여파에 대해 상기시켰다.

"평화, 정의, 치유,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군사적 증가와 민간인 폭격은 결코 평화를 촉진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은 말한다. "모지의 평화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까요?"

인도의 복음주의 지도자는 평화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역사적 문제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 성명서는 단순히 중동과 서구의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뛰어넘어", 문화적, 지역적 고려를 포함하는 뉘앙스를 추구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복음주의자들은 분쟁을 이해하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공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은 말한다.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JAYSON CASPER BY CT

시론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2023년 성탄에 듣는 소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돌아보고 기념하는 성탄의 달입니다. 2023년 올해 성탄은 여는 해보다도 더 무겁고 아프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를 책임지는 초교파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매년 15만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행사이지만 올해에는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애도하기 위하여 화려한 외형적인 행사를 취소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곁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마저 취소하면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에서 가장 힘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닌 장애인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대략 3백만 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면서 간병인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증 장애아들을 시설에 남겨둔 채 피난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목숨만 부지하고 있을 뿐입니다."라며 한 장애인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장애인들로 만들어 갑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분쟁지역에서의 어린이 처우와 관련된 UN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477명이 살해당했으며 909명이 장애를 입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가운데서도 부상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육체는 멀쩡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를 눈앞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남은 평생을 소위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인 심리적인 압박과 상처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지구촌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계시뇨?'라는 동방박사의 물음으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진 헤롯이 베들레헬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임으로써 퍼져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어미들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아픈 소리를 우리 양심 속에서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복음은 훨씬 더 따뜻하고 포근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쏟아내는 이 절규의 소리를 마음 깊은 곳에서 듣기를 원하며...

hankschoi@gmail.com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Exam Subjects

-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 (1) OT Exegesis Text : Leviticus 1:1-9
- (2) NT Exegesis Text : Galatians 2:11-21
- (3) Thesis Topic : "Revitalization Plans & Strategies for Sunday School (Next Generation) after Pandemic"
- (4) Sermon Text : (Choose One) O.T- Judges 2:1-10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after Them", N.T- Colossians 1:24 "Lacking in the Sufferings of Christ"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sephKim-OTExegesisPaper.pdf)
 - ⓒ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0, 2024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30, 2024.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1-24, 20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20(Mon)~21(Tue), 2024
- b) Place :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0,21) through Rev. Joseph Kim
- b)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Joseph Y. Kim
Address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Cell : 213-215-8523 E-mail : laredeemer@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Y. Kim 213-215-8523 laredeemer@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김성국 목사
서 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언성 히어로

지금 우리 교회는 연말 특새 중입니다. 이 기간에 은혜로운 특새를 위하여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가 계십니다.

저처럼 앞에서 예배와 기도를 이끄는 목회자들과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특새에는 숨은 공로자들, 알려지지 않는 영웅들, 곧 '언성 히어로(unsung hero)'들이 많

이 계십니다. 새벽 3시에 분당 주차장 문을 여는 분들, 새벽부터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분들, 새벽에 찬양하는 찬양대원들과 다락방 식구들, 웨키나 찬양팀과 오케스트라 단원들, 주차 안내원들, 주방 담당자들, 특새 안내원들, 특새 중보기도자들, 아침마다 국밥을 준비하는 성도들, 뉴스 레터 편집자들, 사진 담당자들, 학생 등교를 위해 셔틀 밴을 운행하는 분들, 감사 접대하는 분들, 영상과 음향 담당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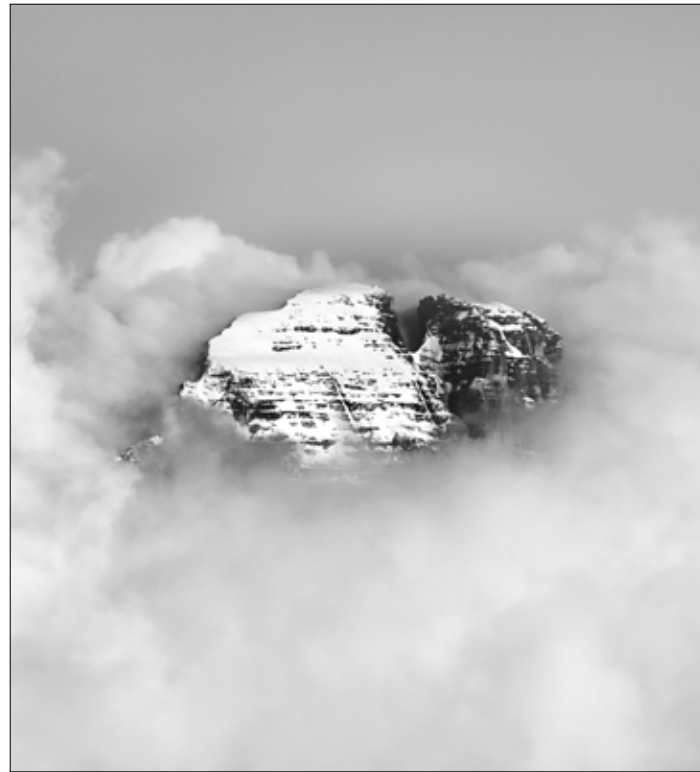
통역자들, 그 외에도 특새 동안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분들의 헌신으로 특새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아기를 담요로 돌돌 말아 싸매고 나오는 젊은 부부들, 분당 바다에 담요를 깔아서 아이들을 눕히고 예배를 드리는 부부들, 유모차 부대, 뜨거운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젊은이들, 강대상 위에 가득 앉아있는 청소년들, 하품하는 자녀들을 깨워서 함께 특

새를 참석하는 부모들,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과 사역자들, 불편한 몸으로 참석하는 어르신들과 환우들, 매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출근하는 성도들... 특새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가 '언성 히어로'입니다. 기도의 벽에 꽂혀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통일 한국을 위해, 종전을 위해, 나라와 열방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모두가 '언성 히어로'입니다.

언성히어로 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특새 '언성 히어로'들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깁니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아무 대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맡겨진 달란



트로 묵묵히 섬긴 성도들, 총성스러운 종들에게 또 다른 달란트를 맡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른 새벽부터 특새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은혜의 대로를 열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응답의 대로, 축복의 대로, 기적의 대로,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명문 가정이 되는 신앙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대로 위를 함께 행진하기를 기도합니다.

푸/른/초/장

차석희 목사
(뉴욕성실장로교회)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세상의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또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형식을 없애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 형식이 남아 있는 이유는, 그 형식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둘째로, 세상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에게도 충성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빠하실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결단을 예쁘게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환관장도 걱정은 있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먹지 않아서 몸이 약해지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조적인 제안을 합니다.

생각해서 권한을 가진 감독에게 창조적인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시고, 감독께서 결정하라는 제안입니다.

다니엘은 참 부드럽고, 지혜롭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에게 맡기면서, 그 사람의 권한을 충분히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자신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려는 다니엘과 세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청년들의 지혜가 그 당시 바벨론에서 활약하던 지혜자들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시길 기다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음식은 바벨론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러워진 음식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일지라도, 우상은 허상이며, 그냥 돌덩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바쳐졌던 음식이라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형식적인 것조차 정결하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릇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형식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형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형식의 틀에서 자신의 내용을 담고, 더러움을 철저히 없애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은 환관장의 입장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다니엘과 세친구의 삶과 비슷하게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잠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후호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주어진 환경에서 배우고 익히며 뛰어난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채식을 유도할 정도로 자신의 신념은 마음에 바르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배타적이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 땅에서 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이 보인 모습이고, 신약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cha.fcny@gmail.com

그러서 다니엘은 그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니엘이 최초의 채식주의자였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굳게 믿고, 모든 결정을 감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도 최선을 다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감독은 자신의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채식을 허락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은 환관장의 입장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cha.fcny@gmail.com

맥스 루케이도(Max Lucado) 목사는 고난이 성도의 삶에 주는 유익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정원을 오래 거닐수록 우리 몸이 꽃향기가 깊이 배듯이, 성도에게는 고난과 약함이 많을수록 예상할 수 없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 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약함과 고난의 시간이 원광과 불평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묻히고 맛보며 누릴 기회가 됨을 말하는 것이다. 은혜가 임하면, 연약함의 그 쓴 맛이 단맛이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며,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연약함, 고난의 유익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사랑과 인정 가운데 완벽한 환경과

과 향이 나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한 것을 보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삶의 연약한 조건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절제와 노력과 성실함이 없이 어찌면 막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감옥을 들락날락 하여도, 자기 인생에 대해 핑계거리가 충분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그런 조건속에서도 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본다. 이들의 공통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온전히 덮어버렸을 때, 그 영혼이 직면했던 삶의 다양한 질곡같은 문제들은 아

함 없이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더욱 귀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닐까?

더욱 의지함, 겸손, 깨달음

신앙은 해석이고, 해석이 되면 삶의 고난도 넉넉히 견딜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연약함을 주신다. 연약함이 없다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하면 강할수록 감사가 사라진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잊어버린다. 그런데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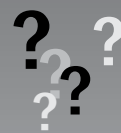
록 하기 위해 주신 가시임을 깨달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차량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이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교만을 제어하고 겸손을 지킬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 귀하고 복되게 쓰임을 받는다. 바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가시는 이러한 제어장치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기에, 이것은 바울에게 불평의 조건이 아닌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마음껏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같은 것이 그의 연약함이었던 것이다.

깨어진 그릇, 은혜 감사

에디오피아의 자비량 선교사이자 복음 사역자인 김태훈 선교사는 스스로를 가리켜 "깨어진 그릇"이라고 소개한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미국에 온 청교도들의 감사에 대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신학 사상적 뿌리는 어떤 것이지요? 알고 싶습니다.
- 가든그로브 송집사

청교도들의 신학사상적 뿌리

A: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청교도들에 대한 신앙과 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청교도의 신학적 사상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쾰링글리(Zwingli, 1484-1531)에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쾰링글리는 루터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성경적으로 개혁한 원주주의자입니다. 그는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성경 제일 중심의 신앙을 가진 개혁자였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은 그것을 충실히 따른 제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 쾰링글리는 1)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 위에 있다. 성만찬은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그 빵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나 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신부와 수녀도 결혼할 수 있다. 인간의 선행이나 성인 숭배를 거부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가톨릭의 성직자 개념을 거부한다. 가톨릭의 Purgatory 즉, 연옥 신학도 거부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교회를 다스린다고 주장했고 청교도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라는 것입니다. 2) 예배를 개혁하지 않고는 종교개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쾰링글리는 초대교회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 상징을 가차없이 떼어내고 불태우고 버렸습니다. 성당의 촛대, 성자상, 마리아상 그림, 성직자 예복, 십자가, 스테인그라스나 벽 장식 무늬등 가톨릭적인 것은 다 제거했습니다.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설교했고 설교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잘 들리도록 성도를 한 가운데에 강단을 높이 설치했습니다. 그는 설교자를 키우는 신학대학을 창설했고 주일성수, 십일조, 엄격한 교회의 처리 즉 권정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 즉 Sola Scriptura를 강조하며 성경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다 개혁하려 했습니다. 3) 과거 가톨릭에서 하던 성가대 중심의 음악이나 음악 전문가들이 독점해 드리는 예배 찬송에서 청중이 다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 중심으로 예배 찬양을 바꾸었습니다. 4) 개신교 예배당도 개신교 철학에 근거하여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소박하게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빈공간이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가톨릭 성당처럼 결코 교회를 화려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만 잘 들을 수 있다면 예배당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5) 교회가 국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교회와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까? 교회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까지도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세우려는 정신, 그래서 Bible commonwealth 성경 연방공화국을 세우기를 지향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퓨리탄(Puritan)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순결하게 한다는 Purify란 영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광야를 지나는 삶의 지혜 7

연약함의 축복 - 은혜와 감사, 깨달음 -

조건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와 약점 때문에 더 약하게 남을 해치면서 상처를 드러내기도 한다. 분노와 증오 속에 살아가는 악당이나 괴물이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많다. 특히, 한국 교회를 지도하고 이끄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수많은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폐결핵을 앓았던 분, 암에서 치유를 받은 분, 가정의 문제나 큰 실패 등 약점들이 있지만 삶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된다.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하셨다는 조용기, 옥한흠, 환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의 간절함도 마찬가지다. 폐병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절로 피를 쏟는 고통 가운데, 그 약함이 더욱 간절한 부르짖음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태어나 보니 둘째 엄마의 넷째아들로 결손가정에서 자랐지만, 전도와 예배에 앞장서는 부산 세계로 교회의 순환보 목사,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져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늘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기용이 불쌍해서 어찌노"라는 말을 듣고 자랐으나 지금은 성결교단 최대의 교회를 이룬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문경 시골 촌사람으로 아파트 한 채값의 병원비를 써 가면서 병으로 약진 고투했으나, 현재는 장로교 포신 교단 최대의 교회를 이룬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 부양능력이 없는 알콜중독의 아버지로 인해 사과밭 창고방에 5남매가 살았던 대구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 등, 이루 말할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적의 재료,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님의 맛

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자기 신격화의 무용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자기 신격화'라는 말이 있다. 누구에게나 있는 성향인데, 자기 자신을 꽤 관중계 생각하고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나 혼자 '고난을 이길 수 있다. 힘을 내라'는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반서점의 가장 많이 팔리는 책종의 하나가 '자기계발서'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스스로의 믿음으로,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 신격화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자기 신격화의 끝은 무엇인가? 최상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자수성가'이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이들을 보면, 대개 자기 자신의 의지가 강하고 상당한 자기 높임의 교만이 가득한 것을 본다. 그 결과 이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손해를 보게 된다. 복음의 은혜가 찾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들이 주님을 더욱 만날 기회를 얻기 보다는 오히려 큰 벽을 쌓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자기주도적인 삶과 성공 신화가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간절함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럼, 연약함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연약함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연약함은 감사의 조건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강하고 잘나고 부족

더욱 의지하는 것을 본다.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 나의 연약함 위에 능력의 하나님이 마음껏 임재 역사하심으로, 나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분명히 그 연약함은 축복인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자고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라고 연약함을 주신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다.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성지 순례중에 그리스에 가보면 바울 동상이 있는데, 키도 작고 콧수염이 대머리에 맨발 동상이 있다. 마른 체형에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만들어 두었다. 아마도 그가 받았던 수많은 고난들로 늘 몸이 아팠기 때문일 것이다. 평생을 질병의 연약한 고통속에 살았음을 표현한 것이라 여겨졌다.

가시의 축복

실제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은혜가 임했고, 은혜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의 이유를 깨달은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만족한다고 고백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은혜를 깨닫고 나면, 문제가 해석이 되기만 하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음을 본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재능을 제어할 기제로, 자신의 교만을 제어하여 겸손하게 계속해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도록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간담 췌 외과에서 촉망받던 의사였는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은혜를 깨달은 것이다.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사명에 이르게 됨을 본다. 축복의 과정이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사명에 이르지 못하면, 그 은혜가 쉽게 잊혀지고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본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앞에 사명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빛나 보이던 미래를 내려놓고 방글라데시와 남수단을 거쳐서 에디오피아로 선교를 위해 건너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1년 동안 현지적응을 하고 본격적으로 의료사역을 하려는데 그만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외과 의사로는 사망 진단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외과의사인 생명 '칼잡이'로 불리는 서전(Surgeon)인데, 파킨슨병은 완전히 그의 미래를 암전처럼 만든 사인이었던 것이다. 이때 자기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 "내 인생은 쓸모없는 깨어진 그릇이다."였던 것이다. 그때 그는 절망가운데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음성이었다. 또한, 그 깨어진 그릇같은 자신을 위해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완전히 깨어지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깨어진 그릇같은 인생을 회복시키신다는 음성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난 후로, 그에게 육신의 약함은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못했다.

더불어 두 가지를 깨닫고 감사를 드렸다. 하나는 자신의 연약한 깨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모두 덮어주

시고 가려 주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주변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전부 감사거리로 보이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 김태훈 선교사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아내와 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에티오피아를 더욱 사랑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모든 인생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연약함 속에서, 은혜가운데 배우고 깨달으면서 그 삶을 지탱해 가는 것이다. 곤고한 삶의 문제앞에서 연약함이 있어도, 더욱 주를 의지하도록 하기위해서, 하나님

이 쓰시는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사명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를 깨닫고 알며, 신앙으로 고백하게 될 때, 연약함이 주는 모든 고통은 오히려 신앙의 큰 성숙과 진보를 나타내는 큰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약함 속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

davidnjon@yahoo.com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교회의 생명력

필자가 2년반전에 교회를 개척할때 어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 개척을 왜 하세요? 이런 시기에 개척을 하는것은 거의 미친 짓입니다". 그분의 그런 반응은 한참 팬데믹이 진행되던 상황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였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왜 개척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전도와 분부한 모든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양육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 완수를 위해서 입니다. 전도와 양육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전략으로서 무슨 상황이 오

라도 교회가 멈추지 말아야 할 사역 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접하면서 두가지 공통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첫째는 사역이 너무 힘들다는 고백이였습니다. 둘째는 전도와 양육에 소극적이였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마치 씨름 선수가 살바를 야무지게 잡고 경기에 임하듯이 전도와 양육에

사활을 걸고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 영혼들을 붙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육을 하면 성령께서 영혼을 얻는 열매를 주실뿐 아니라 사역을 감당해 나갈 영적 전투력을 배가시켜 주십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기 저기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다양한 세미나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열려 왔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잠시는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는데 문제는 사역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힘들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최근에 필자가 인도했던 목회자및 선교사님들 전도학교에 참여 하였던 목사님 한분이 훈련을 마치고 개척한지 약 12년만에 현장 전도를 처음으로 나가본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개척에 참여한 여러 가정들을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회는 열심히 가졌는데 현장 전도와 양육은 제대로 시도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분은 현재 현장 전도를 정기적

으로 나갈뿐 아니라 1대1 양육도 동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도 매우 단순하지만 사역의 원리도 매우 단순 합니다.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령께서 세워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분히 현대 교회들의 상황을 돌아 보십시오. 전도와 양육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에 약해져 있는 만큼 교회의 영적인 힘도 약해져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들에게 최우선으로 필요한것은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 물질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와 양육에 사활을 걸지 않는 교회에 물질이 제공된다면 마치 밀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에 사활을 걸지 않는 교회들에게 몇년간 물질 후원을 해 보십시오.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물질 후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이나 이론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전도와

는 교회와 전도된 영혼들을 붙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육하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현재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사실 보다 현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양육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가 하는 사실로 교회를 진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단은 매우 중요 합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도 잘못되고 처방이 잘못되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은 영혼이 전부인것 처럼 생각하고 한 영혼에 미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전도와 양육에 힘쓰면 시간은 걸려도 성령께서 반드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전도와 양육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교회 문을 언제 닫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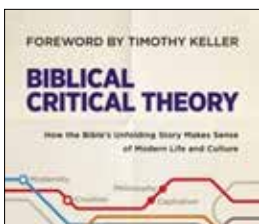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기록서적 올해 최고의 책은 '성서 비평 이론'

크리스토퍼 왓킨 호주 모내시대 인문학부 교수의 '성서 비평 이론'이 '미국 크리스천네티우데이(CT) 2024 도서상'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근현대 유럽 사상과 무신론, 현대 철학을 연구하는 저자가 쓴 이 책은 성경이란 렌즈로 현대 사회와 문화를 조명하는 일종의 기록 변증서다. 지난해 11월 출간됐으며 672쪽 분량에 달하는 일명 '벽돌책'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토대로 과학 예술 정치 다문화 평등주의 등 사회 주요 현상을 고루 다룬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현대 및 중세 언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그간 '난해한 무신론' '플라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위대한 사상이 자크 데리다' 등을 펴냈다. 책의 서문을 쓴 고(故) 팀 켈러 뉴욕 리더교회 창립목사는 "수년간 간절히 기대해온 책이다... 앞으로 수십 년간 여러 사람이 이 저작으로 지적이고 영적인 열매를 맺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올해의 책이자 '변증·전도' 부문 대상작으로도 선정됐다. CT는 "저자는 심리학이나 법학 등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보다 성경이 현대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탁월한 방식으로 세상 자체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평했다.

파나마 정글 건너 美 밀입국하는 중국 아첨민들

가오즈빈(39)씨는 지난 2월 24일 열세 살 딸과 함께 중국을 떠났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일단 인근 국가로 나간 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남미를 통해 미국으로 가 망명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막막했다. 미국 정부의 정식 비자는 엄두도 낼 수 없었고 비행기 티켓을 살 돈도 없었다. 가진 돈을 다 털어 가까운 태국으로 간 뒤 밀항 화물선을 타고 콜롬비아에 도착했다.



'다리엔 갭(Darien Gap)'은 중미 파나마와 남미 최북단 콜롬비아 사이 약 100km 길이의 정글로, 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통로다. 가오씨는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이곳을 지나 파나마에서 멕시코로 넘어간 뒤 미국으로 밀입국했다. 35일 동안 9개국을 거치는 험난한 여정 끝에 미국 땅을 밟은 것이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행동 지침에 따라 미국 국경수비대에 자수해 구금된 뒤 망명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가오씨와 같은 저학

력·저임금 중국인들의 미국 망명이 최근 들어 급속히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NBC방송도 "올해 1~9월 다리엔 갭을 통과한 난민 30만 8000명 가운데 중국인이 1만5000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미국에 망명한 중국인 대다수는 공산당 체제에서 탄압받은 반정부 인사이거나 중국 내 재산을 정리해 이민 절차를 밟은 부자들이었다. 이들보다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중국인들이 불법 입국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몰려가는 것은 중국 경제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오씨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정권은 중국 전체를 기아로 내몰고 있다"면서 "나는 내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했다"고 말했다. NYT는 "중국 정부는 경제가 견실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급감하고 임금 수준도 크게 후퇴해 하층 서민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도 여당 주의회 선거 압승... 모디 총리 3연임 청신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핵심 주 3곳의 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내년 4월 총선에서 모디 총리의 3연임 가능성이 커졌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BJP는 지난 달 의회 선거가 실시된 5개주의 개표 결과 3개주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BJP는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230석 중 163석을,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199석 중 115석, 중부 차티스가르주에서는 90석 중 54석을 확보했다. 3개주에서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를 제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이다. INC는 남부 텔랑가나주에서만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동북부 미조람주에서는 지역 정당인 조람인민운동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작은 주인 미조람을 제외한 4개주는 인도 정국에서 비중 있는 곳이어서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의 가늠자로 주목받았다.

모디 총리는 유권자 5600만명의 마디아프라데시에서 수성에 성공한 뒤 "이 결과는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것"이라며 "정직, 투명성, 거버넌스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BJP 소속 스므리티 이라니 여성·아동개발부 장관은 "이번 선거 결과는 모디 총리의 개인기에서 비롯된 '모디 매직'의 증거"라고 말했다. 인도는 5년마다 총선을 치르며 총리는 다수당이나 연정에 의해 선출된다. 2014년 처음 취임하고 2019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모디 총리는 내년에 집권 10년을 맞는다.

이번 선거 결과로 모디 총리가 5년 더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자 센세스지수가 4일 장 초반 1.6%까지 상승하는 등 인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모디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결과다. 달마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 게리 두건은 "다음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승리할 것이며 현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유지되고 발전될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내구재 가격 5개월 연속 하락... '내년 하반기 물가 목표 달성 가능'

미국에서 승용차나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며 부분적인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져 내년 하반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목표(2%대 물가상승)를 조기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최근 공개한 10월 개인소비지출(PCI) 가격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 내구재 가격이 전년 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인들은 지난 3년간 보지 못한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분야별로는 10월 신차 및 중고차와 부품 가격이 전월 대비 0.4% 하락해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가전제품은 0.2% 하락했고, 개인용 컴퓨터 등 오락용품은 0.4% 하락했다. 1년 전보다 각각 1.5%, 2.2%, 4.3% 낮은 수준이다.

WSJ은 그러나 서비스와 의료·신발, 식료품 가격이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전반적인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계속되는 내구재의 가격 하락은 팬데믹 때 발생한 공급망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스위스의 투자은행 UBS 소속 경제학자인 앨런 데트마이스터는 "물가를 끌어올린 이유가 공급 문제였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가격 하락은 내년에도 미국 물가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졌다. 모건스탠리는 "공급망 개선과 수요 약화로 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상품 가격 하락이 내년 중반까지 가속할 것"이라며 "이는 지속적인 서비스 분야 가격 상승 폭을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년 9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UBS도 내년 4분기 미국 물가 상승률이 1.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2026년에야 목표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한 연준의 지난 9월 경제 전망 발표보다 훨씬 빠른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지구온난화 방어선 1.5도 앞... '2030년 전에 깨질 것'

지구온난화의 최후 방어선으로 지목된 '앞으로 1.5도'의 상승 폭을 2030년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P통신은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가 이런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보도했다. GCP는 지구온난화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다.



GCP는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

구 온도가 2030년 안에 산업혁명 전보다 1.5도 넘게 올라갈 확률을 50%에 달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1.5도 상승 폭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지목돼 있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에서 각국은 지구 표면 평균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다.

보고서의 수석 저자 피에르 프리들링스타인 영국 엑서터대 교수는 "현재 온도가 1.5도 상승할 때까지 걸릴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어떻게든) 1.5도 이하로 유지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9억톤에 달한다. 그중 화석 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해 사상 최대인 368억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해보다 배출량이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산업 활동이 다시 늘어나며 석탄·석유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2위인 미국은 지난해보다 배출량이 3% 감소했다. 인도의 경우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8% 증가해 유럽연합(EU)을 제치고 세계 3위가 됐다.

현재 지구 온도는 1.5도 상승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월 기준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보다 1.4도 높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가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공격' ... 이스라엘 총격의 '홍수작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땅굴에 바닷물을 투입해 침수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WSJ에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중순 가자지구 북부 알사티 난민촌에서 북쪽으로 1.7km가량 떨어진 지점에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한 대형 펌프를 최소 5대 설치했다"고 전했다. 각 펌프는 지중해로부터 시간당 수천㎥의 해수를 끌어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수주 내로 하마스 땅굴을 물에 잠기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초 미국에 이 같은 계획을 알렸고, 미 당국자들은 실현 가능성과 환경에 끼칠 영향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이스라엘이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는 아니다. 바닷물 투입에 대한 미 정부 내 반응은 엇갈린다. 땅굴이 물에 잠기면 하마스 대원과 인질들이 지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전술이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터널 구조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수도 오염 등 인도적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네덜란드 시민단체 팩스의 빔즈워넨버그는 "홍수 작전으로 이미 오염된 가자지구 토양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터널의 유해 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홍수 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우리는 하마스-테러 능력을 없애기 위해 여러 군사적·기술적 도구들을 사용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교도들의 언약 신학 (7)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II. 청교도 교회언약 (Puritan Church Covenant) (3)

1620년 필그림 청교도 (분리주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Mayflower)를 타고 신대륙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한지 10년 후, 1630년 독립파 청교도들이 (Independent Puritans 비분리주의) 존 윈스롭 (John Winthrop)을 지도자로 하여 약 1000명이 영국에서 아르벨라호(Arbella)를 타고 신대륙 보스턴에 도착했다. 이들의 모델은 구약의 성도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로서 언약을 세우는 것이 지금 윈스롭을 비롯한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언약을 맺었다.

이미 믿음으로 개인언약에 있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제 교회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이들의 비전은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이 언약의 구체적인 개념은 마 5장 14절을 근거로 하는 "안덕위의 도시" (City on a Hill), 곧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일이었다.

이 청교도들의 비전은 신대륙으로 향하는 아르벨라호 배 위에서 윈스롭의 설교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러하여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규약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간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평화롭게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승인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인치시며, 그 안에 포함된 규약들이 철저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약속의 규약들을 우리가 등한히 여

겨 지키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이 세상과 포옹하며, 우리의 정욕적인 의도를 추구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을 위해 우리의 위대한 것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진노를 부으실 것이며, 패역한 백성들에게 복수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존 윈스롭의 "기독교 자비의 모델" (A Modell of Christian Charity))

"Thus stands the cause between God and us. We are entered into covenant with Him for this work. We have taken out a commission. The Lord hath given us leave to draw our own articles. We have professed to enterprise these and those accounts, upon these and those ends. We have hereupon besought Him of favor and blessing. Now if the Lord shall please to hear us, and bring us in peace to the place we desire, then hath He ratified this covenant and sealed our commission, and will expect a strict performance of the articles contained in it; but if we shall neglect the observation of these articles which are the ends we have propounded, and, dissembling with our God, shall fall to embrace this present world and prosecute our carnal intentions, seeking great thing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the Lord will surely break out in wrath against us, and be revenged of such a people, and make us know the price of the breach of such a covenant."

존 윈스롭과 독립파 청교도들의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목적이 매우 분명하였다. 그 목적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holy society of God)"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목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

님의 저주가 부여된다. 여기에는 우리는 존 윈스롭이 새로운 땅으로 가면서 선상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과 구약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신명기 28장의 설교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언약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며, 스스로 책임을 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사명을 자발적으로 감당해야한다.

청교도들에게 은혜언약의 조건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언약 후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은 성화인데 성화도 성령님의 사역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의 근원이 되신다. 성화도 인간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개인이 체험하는 은혜언약은 자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언약은 자발성이 매우 강조된다.

신대륙으로 가는 청교도들에게 교회 및 사회언약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과 저주는 (covenant blessing and curse)는 그들이 이미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1630년 존 윈스롭을 중심으로 신대륙으로 (보스턴) 이주한 독립파 청교도들은 사회언약과 동시에 교회언약을 체결하면서 교회를 세웠다. 청교도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교회가 그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회언약을 통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웠다.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의 기초 위에 거룩한 사회가 세워진다. 이것은 청교도들의 확신이었다. 그들이 보스턴에 도착한 해, 1630년 교회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찰스타운 보스턴 (Charlestown Boston) 교회를 세웠다. 찰스타운 보스턴 교회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30년 7월 30일의 찰스타운-보스턴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뜻과 거룩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시며, 선한 설비에 의해 미국의 매사추세츠만으로 인도함을 받아 왔고, 우리의 마리아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의 회중, 즉 교회로 연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분께서 구속하시고, 그분 자신을 위해 거룩하게 하신 모든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그분의 가장 거룩한 전에서와 같이) 엄숙히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모든 길에서 율법에 따라 행할 것을 약속하고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복음과 그분의 거룩한 규례를 진심으로 따르고, 상호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기를 언약합니다." 존 윈스롭(John Winthrop) 주지사. 토마스 듀들리 (Thomas Dudley) 부지사. 아이작 존슨. 존 윌슨.

"The Charlestown-Boston Covenant of July 30, 1630: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in Obedience to His holy will, and Divine Ordinance: Wee whose names are herevnder written, being by His most wise, and good Providence brought together into this part of America in the Bay of Massachusetts, and desirous to vnite our selves into one Congregation, or Church, vnder the Lord Jesus Christ our Head, in such sort as becometh all those, whom He hath Redeemed, and Sanctified to Himselfe, doe hereby solemnly, and religiously (as in His most holy Praesence) Promise, and bind ourselves, to walke in all our wayes according to the Rule of the Gospell, and in all sincere Conformity to His holy Ordinances, and in mutuall love, and respect each to other, so neere as God shall give vs grace. John Winthrop, Governour. Thomas Dudley, Deputy Governour. Isaack Johnson, John Wilson."

여기에 독립파 청교도들의 교회관이 잘 나타나있다. 교회는 세상에서의 구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영국에서 매사추세츠에 와서")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들의 교회언약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포괄하는 사회언약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보스턴 지역에 도착한 1세대 청교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와 사회를 분리시킬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속에 있는 비전은 단순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이었다(city on a hill). 이들이 영국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개인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를 세워야하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사회가 (국가) 존재해야한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아무리 성경적인 좋은 교회를 세워도 왕이 바뀌면 (가톨릭 혹은 영국 국교) 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

청교도들의 교회언약 중심에는 회중의 서약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 성도의 무리로서의 회중이 자발적으로 서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1636년 휴 피터 (Hugh Peter)는 뉴잉글랜드 살렘 교회 목사로 부임했

데, 휴 피터는 영국에서 로터담 (Rotterdam)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언약을 작성하였다. 그는 살렘에 와서 교회언약의 내용을 더욱 확대 작성하여 성도들에게 서약하도록 했다. 성도들은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와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사적이나 공적으로 교회에 손해가 되는 일을 삼가며, 교회에서 자신을 잘 난치 하지 말며, 언약한 형제자매들을 잘 돌보며,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교회 안팎으로 진실과 평화를 지키며, 교회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르신 소명 (직업)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며,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으로 잘 교육시켜 주님을 잘 섬기기로 하겠다는 언약"으로 서약하였다. (The Enlarged Salem Covenant of 1636).

이러한 교회언약은 새로운 땅, 뉴잉글랜드에 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청교도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출발하게 한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구약 이스라엘은 언약의 공동체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복을 베풀어주시고, 언약을 파괴하면 공동체에 저주를 내리신다 (Covenant blessings & curses).

당시 뉴잉글랜드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존 카튼이다 (John Cotton). 카튼의 교회론은 "교회는 신비로운 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회원들은 성도들로서, 이들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한 언약으로 한 회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다." (The Church is a mystical body, whereof Christ is the Head, the Members be Saints, called out of the world, and united together into one congregation, by an holy covenant, to worship the Lord, and to be edified one another, in all his holy Ordinances." John Cotton, the Doctrine of the Church to which are committed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존 카튼의 교회언약 사상은 당시 17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에게 보편화되었다.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대대학생예배: 오후 2:00 청소년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p> <p>telgusa@yahoo.com / www.ls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D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어권: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21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후 1:2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o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게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80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 (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ibleh@bcoc.org / www.bko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회</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월-토) 세례예배: 오전 6:30(월-토)</p> <p>Tel: (213) 388-1927 / www.wmca.com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p>
<p>실비치 사랑교회 (Sea Beach Se-Fe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모임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부)</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총무이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 (분당) E M 예배: (토) 오전 9:45 (101호) 수요예배: 오후 7:00</p> <p>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Tel: (626)294-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어예배: 오후 7:30(수-일), 오후 8:00(월-토) 영아예배: 오후 7:30(수-일), 오후 8:00(월-토)</p> <p>Tel: (714)446-6202, www.groceim.org / www.bko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청소년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 (분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예배: "어성경이 읽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 한인장로교회)

예수 제자의 삶(Life of a Disciple of Jesus)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때를 지어 모여 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율법학자이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마 8:19) 이 서기관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선생님(랍비)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 서기관의 간청에 대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도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마 8:20) 여기서 당시 정치적 풍자로서 여우란? 헤롯 왕을 말하고, 새는 로마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인자는 이종적 메시지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권능 있는 모습이 아닌 심자를 향하시는 모습인 인자의 모습(마 19:28, 20:18) 오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나희들이 나를 따라 다녀야 별 볼일 없다. 실질적인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고생만 실컷 한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청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일관된 원칙은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고 함께 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결정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름 받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따르는 것은 주저하고 있었습니...

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부친을 핑계로 예수님을 떠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시니라"(마 8:22)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제자로 살려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가치인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Don't Put it off until Next Time)고 하십니다. 육신적인 일을 핑계로 신앙을 보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쟁기질을 할 때는 앞의 목표를 정해 놓고 똑바로 보아야지 뒤를 돌아보면 줄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뭇의 처는 소들성을 빠져 나오다가 두고 온 것들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뭇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창 19:26)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코 육신적인 일을 핑계로 신앙을 보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든 항상 영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르실 때 즉시 따라야 합니다.(Must Follow Immediately) 교회는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것을 주는 곳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은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눈은 교회 밖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수단으로 세속적인 가치를 탐하는 것입니다. 옛날 독립군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을 수락해야만 받아 주었다고 합니다.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열어 죽을 각오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면 하늘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각오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 즉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고난을 각오하고 즉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들이나 친척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즉시 믿음생활을 했습니다.

독일의 순교자 본 웨퍼는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는 말을 너무 강조하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근, 사탕만 먹인 것입니다. 부담 없이 교회 다니는 교인만 양산한 것입니다. "값싼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린 만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십니다. 영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즉시 따르기를 결단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영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먼저(God First)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시급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레이디 퍼스트(Lady firs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갓 퍼스트(God first)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갓 퍼스트(God first)해야 합니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필립스 브룩스(Phillips Brooks, 1835-1893) 목사님은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것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로마의 변방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도 변방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차 사람들이 자신을 에워싸자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의 나그네의 삶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안겨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의 삶을 사신 것은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생각

하루를 사는 동안 사람들은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그 생각은 평소와 자신과 관련한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적인 것, 관계적인 것, 미래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등 다양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라는 주제로 캐나다 퀸즈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했는데 1분에 6.5번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의 생각의 흐름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다. 뇌에 저장된 기억 또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많은데 이는 부정성 편향으로 위험 상황에 잘 대처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생존을 위한 뇌의 선택이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살아오면서 겪게 된 부정적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기억에 지배를 받아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사춘기 시절에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 현재도 그것에 눌러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부모, 형제, 가까운 친척, 친구, 성도 혹은 배우자로부터 들었던 자존감을 위협했던 말들은 내 안에 웅크린 자아를 형성하고 그것은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뼈죽이 고개를 내밀고 나와 또다시 오늘의 삶을 위협하곤 한다. '마음으로 몸을 다스려라'는 책의 저자인 허버트 벤슨(Herbert Benson) 하버드 의대교수는 우리의 뇌는 신체와 연동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신체는 그대로 반응하기에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상황에 직면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 사람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 곧 암이 걸리고 말 거야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스트레스는 있지만 이것은 나에게 어떤 병도 발생시키지 못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전자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원리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화는 신체에 긍정의 반응을 나타내 보인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23, 쉬운 성경). 마음(생각)을 지키는 것이 돈이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삶의 활기찬 생명력은 바로 우리의 마음(생각)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한 일은 떠나고 피함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이 네 몸을 치료하고 네 뼈들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잠언 3:8).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12월이다. 예수님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고단한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기 위해 영원에서 시간으로 오셨다. 우리의 지나온 기억 속의 아픔들, 그리고 현재의 마음의 통증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신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자.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자. 그리하여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현재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더욱 건강한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갑절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Main Title: 기타지역 교회.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청강생인가 수강생인가?

미국에 유학 와서 신학교를 처음 다닐 때, 내가 신청한 수업 외에 다른 여러 수업을 청강할 수 있었다. 당시 한 과목을 수강하는데 대략 3000불이 넘는 수업료를 내야 했는데, 한 과목을 청강하는 데에는 50불이면 충분하니 매우 좋은 조건이었다. 그래서 꼭 듣고는 싶었지만, 내가 계획한 공부의 방향과 관련이 없는 강의를 청강하기로 하고, 단돈 50불을 내고

그 수업에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인기가 좋은 강의에 매우 많은 청강생들이 몰려들었다. 강의 첫 시간, 수업을 시작하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청강한 학생들은 모두 수강 신청한 학생들과 똑같이 독서과제를 하시고, 토론에 참여하시고, 마지막 소논문까지 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청강생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첫 수

업시간이 끝나자 매우 많은 청강생들이 가방을 싸서 우루루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필자 역시 그들과 함께 강의실을 빠져 나왔다. 강의를 듣고는 싶었지만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강의에 참여할 마음은 없었던 이유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강생이 아니라 청강생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막상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리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회생과 헌신, 고생을 동반하는 것이니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달콤한 말씀, 재미있는 말씀을 듣는 데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듣기만 하면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녁 시간이 되면 '내려와서 밥 먹어라' 하고 아이들을 식탁으로 부른다. 그러면 '네' 하고 답은 하지만 식탁까지 오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 식탁에서 기다리는 엄마가 묻는다. '내려와서 말 안들었니?' 그러면 아이는 대답한다. '네 들었어요.' 아이는 엄마의 말을 귀로는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들었다고 여기지만, 엄마는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여긴다.

다음은 행함을 전제로 한다.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행동해야 그 들음이 완성된다.

신명기 28장 2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라고 가르친다. 여기에서 '청종'은 '듣다'와 '따르다'의 합성어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

르는 데에 있다.

이제 2023년도 1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올 한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가 하는 것보다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갔는가 하고 돌아보자. 그리고, 청강생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수강생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듣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청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wmclakim@gmail.com

AI, 두려워할 필요 없다

(1면에서 계속)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사 54:16). 하나님께서는 역사 전반에 걸쳐 기술 발전이 증가하도록 예정하셨다. 그러나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일반 은총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AI 기술이 너무 멀리 나아간 게 아닌지 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수단과 별개로 신성한 형상을 재창조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고유한 권위를 찬탈하려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벌이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인류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이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더 멀리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지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AI는 초창기부터 인간을 연구하고 모델링한 만큼 부분적으로 인간을 모방했다. AI 연구와 신경과학의 상호작용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AI가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가깝게 모방할 수 있을지는 유토피아적 추측과 디스토피아적 추측, 두 가지를 전부 다 불러일으킨다. 좀 더 환상적인 측면에서 The Jetsons 또는 스타 트렉의 희망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좀 더 부정적인 측면에서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를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영혼을 창조하지 못하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마라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AI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질문하고 씨름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심오하고 미묘한 질문을 던진다. AI가 인간의 독창성과 산업을 쓸모없게 만들 것인가? AI에 대한 성경적 대응은 무엇인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자원의 전파를 가속하는 신성한 선물이 맞다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AI는 과연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이 간단한 글의 목적이 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많은 질문 뒤에는 미지의 것에 대한 일반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

는 이 새롭고 복잡한 기술에 대한 숨어 있는 두려움에 맞서면서 동시에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적 원칙을 다루고자 한다.

1.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기록하고 지혜로우시다. 그분은 권능 있는 주권의 역사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AI의 발전이 흥미롭고 놀랍기도 하지만, 인간이 이루는 최고의 기술 발전도 하나님의 눈에는 고작해야 어린아이 소꿉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구현하는 기술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새삼 상기한다. AI 기술이 인간 산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더 나쁜 것은 인간 생명을 근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세계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AI가 아니라 성경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계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노선을 따라 전개된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줄거리의 반전을 다 알 수는 없

다. 그 특권은 사람이 되신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에게만 주어졌다. 오로지 인간만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다(시편 8편).

AI 기술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창성을 증명한다. 이 독창성은 그분을 섬기는 데 사용된다(물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창의 지능을 악을 위해 사용하지만). 하지만 인공 신체를 만들 수 있는지는 몰라도 결코 영혼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놀이에 불과하다. 즉 창조주의 귀여운 흥내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주의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탐험가이자 발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사 46:10). 그분은 인간 세상에서 AI 기술의 수준을 포함하여 모든 일을 오로지 당신 뜻의 결정에 따라 행하신다(엡 1:11).

2. AI 기술(다른 모든 인간의 업적과 함께)이 죄인의 구원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우리는 AI에 대한 열정이나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AI가 큰일을 할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일을 이룰 수는 없다(행 4:12). AI를 구세주나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AI에게 그 목적을 넘어서는 역할을 잘못 할당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모방하여 "그들"과 다시 대화하기 위해 Seance AI를 사용하는 시도를 볼 때, 우리는

지만, 최소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앉으셨으며, 새 창조를 위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그때까지는 밀과 가라지가 나란히 존재한다(마 13:24-30). 두려움을 지혜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3.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

AI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었다),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는 없다. 인간은 단순히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이다. 우리는 단지 생물학 주머니나 복잡하고 유기적인 슈퍼컴퓨터가 아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육신과 영혼 둘 다를 갖춘 피조물(psychosomatic creatures)이다.

하나님은 흠으로 첫 사람을 만드셨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창 2:7). 우리는 결코 기계와 똑같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인간을 제사장이요 왕으로 만드셨다(창 1:26-28). 어떤 기술적인 발명도 영광과 영예의 면류관을 얻을 수는 없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한다(마 10:28).

4. 변화의 시대를 맞아서 기술적으로는 밝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겠다는 그리스도인의 결의를 재확인하자.

두 건축자의 비유에서처럼, 폭풍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반석 위에 집과 모래 위에 집이 다르지 않았다(마 7:24-29). AI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드러내는 어떤 사상적 "기반"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환영을 느끼도록 한다.

당신이 죽은 후에 AI가 당신의 목소리를 흉내 낼지는 모르지만, 당신을 무덤에서 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기술로 우리가 의기양양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의 위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AI 시대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그 기술을 복음 전파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보여주고, 회개를 전하고, 또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흥미로운 개척지이다.

by Mike Kirby-Matthew Emadi, TGC

번영 복음은 미국 태생이다

(2면에서 계속)

성경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말한다. ...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인정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나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 나는 재능이 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와 같은 말을 확실하게 선언하라." 이런 메시지는 긍정적 사고의 신사상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말의 힘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번영 복음 지도자들의 미디어 제국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번영 복음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왜 이게 여전히 미국에서 율려 퍼지고 번성하는 걸까?

성공 비법

성공 요인은 단 한 가지가 아니다. 아마도 혼합된 여러 가지 이유로 번영 복음이 미국에서 정착했을 거다.

• 번영 복음은 성공하고 건강하며 금전적으로 안정해지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호소한다. 이러한 욕망이 본질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해 할 우리의 욕망을 대신한다면 죄가 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건강이나 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대하는 태도에 달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사람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는 고집 센 마음에 최악의 상황을 가져다주는 게 바로 번영 복음이다. 물론 이 이유는 사는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지만, 다음 몇 가지 이유는 오로지 미국에만 해당한다.

• 번영 복음은 아메리칸드림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미국인에게는 매력 있게 다가간다. 집과 자동차 두 대를 소유하고, 금전적 안정을 누리며 행복한 가족을 이루라. 아메리칸드림을 강화하는 것은 광고주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건강, 외모, 재정 상태, 현재 소유물에 대해 불만을 품게 만드는 것과 하나 다르지 않은 소비자 문화이다. "당신은 지금보다 나아질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삶이 개선되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개인적 성취, 심지어 자격 부여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는 미국 문화에서 바로 그것을 약속하는 게 번

영 복음이다. 성공의 징표는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고백과 믿음의 말을 통한 개인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는 게 이 가르침이다. 그리고 번영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비물질적인 믿음이 언제나 물질적인 부를 불러온다고 가르친다. 번영 복음은 아메리칸드림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축복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번영 복음은 미국 문화의 특정 측면에 호소한다. 미국에는 낙관주의와 개인주의가 넘쳐난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라."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라." 이런 멘트나, 구호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개인적인 책임감과 긍정적인 태도는 바람직한 특성이지만, 그러한 낙관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 미국인들은 인간의 본성과 잠재력에 대해 고상한 견해를 갖는 경향이 컸다. 번영 복음은 당신이 충분히 선하다고 가르친다. 그렇기에 얼마든지 당신의 뜻에 맞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생각과 말을 바꾸고 믿으면 된다고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의 개인 비서인 우주 벨보이 하나님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 한다.

• 자본주의와 강력한 노동 윤리의 틀 속에서는 부를 창출하고 증대할 기회가 존재한다. 미국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으며, 정직한 노동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것은 사회에 좋은 일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번영 복음은 매력 있게 다가온다. 얼마든지 상향 이동이 가능하고 번영하는 경제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 살 때, 당신 편에 선 하나님이 경제 시스템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축복하는 것은 추가 보너스이다. 충분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축복이 흘러나올 것이다. 결국,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특권이다.

• 교회에 성경보다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교인으로 넘친다. 그리스도인은 종종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과 기쁨, 성공을 정의한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거룩함과 신실함,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라 지위와 부, 지위의 관점에서 본다. 불행하게도 번영 복음은 책, 콘퍼런스, 소셜 미디어,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예상치 못한 곳까지 마구 퍼졌다. 작년에 나는 아르메니아에서 설교했다. 거기서 요청한 주제가 바로 번영 복음의 진실이었다. 미국에서 시작한 번영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by Russell S. Woodbridge, TGC

동부교계 기사판

제시유 뉴욕미션합창단 크리스마스 콘서트

뉴욕미션합창단이 주관하는 크리스마스콘서트가 12월 10일 주일 오후 5시30분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주회는 시니어 웰빙개발센터이다.
▲ 문의: 516-343-4703 (사무총장 최윤섭)

더나눔하우스, 2023 감사의밤

더나눔하우스(박성원 목사)는 쉼터 마련과 비전 나눔을 위한 감사의 밤을 12월 10일(주일) 저녁 5시에 한인봉사센터(K.C.S)에서 개최한다.
▲ 문의: 718-683-8885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52회기 이·취임식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12월 11일(월) 오후 5시 성탄축하예배 및 제52회기 이·취임식을 뉴욕만나교회에서 개최한다.
▲ 문의: 917-750-8174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12월 14일(목) 저녁 7시(동부시간) 줌(zoom)을 통해 “흐름을 읽는 교회가 살아남는다”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4』의 공동 저자인 지용근 대표(목회데이터연구소)를 강사로 초청하여 2024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아래 구글 폼에 등록을 하면 줌 링크를 추후 전달 할 예정이다. <https://forms.gle/xRTdetC4ZLcChsLu7>
▲ 문의: 조원태 목사 718-309-6980

뉴욕한인장로연합회, 제14회 정기총회

뉴욕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제 14회 정기총회를 12월 16일(토) 오후 12시에 산수갑산2(별실)에서 열린다.
▲ 문의 917-204-9879

뉴욕한인합창단,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뉴욕한인합창단(지휘 양재원)은 12월 17일(주일) 오후 6시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송년음악회가 개최한다.
▲ 문의: 917-658-3181, 917-520-0584

뉴욕센트럴교회, 제13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12월 17일(주일) 오후 4시에 제13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을 개최한다.
▲ 문의: 516-387-9940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제4회 정기연주회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단장 박영희 권사)는 선교를 위한 제4회 정기연주회를 12월 10일(주일) 오후 5시에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개최한다.
▲ 문의: 단장 박영희 권사 531-766-6086



뉴욕농아인교회, 설립 1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권사임직식

뉴욕농아인교회, 설립 1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권사임직식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뉴욕농아인교회(담임 이철희 목사) 1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권사임직식이 12월 3일(주일) 오후 4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정대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철희 목사는 “15년 동안 뉴욕농아인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메마른 농인 영혼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역자와 사역자가 나날이 늘어가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목사 인도로 시작된 임직예배는 임직자 오이킵제 권사를 최초의 농아인 권사라고 소개했고 서약, 공포 후 임직패를 증정했다.

오이킵제 권사는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소망하시는 농아인교회가 계속 부흥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또한 지난 15년 간의 사역을 영상으로 보고 한 뒤, 15년 동안 함께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이다윗 목사(세계밀알 선교합창단), 김광석 회장(뉴욕 한인회 회장), 하용화 회장(솔로몬보험그룹 회장), 변종덕 이사장(21희망재단 이사장)이 축사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박헌영 목사(퀸즈순복음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2023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을 마친 후 사진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생명을 살리며 희망을 주는 전도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이스라엘 목사)는 2023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을 12월 3일(주일) 오후 5시30분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개최했다.

한필상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1부 예배는 기도 전회수 목사, 성경봉독 김인한 장로, 설교 이풍삼 목사, 축도 양민석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풍삼 목사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막 2:1-12)의 제목을 통해 ‘한 중풍병자를 위해 네 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이유는 그 아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며 ‘믿는 자가 먼저 예수님 중심으로 충만한 마음이 넘치면 선교는 다시 살아나고 교회도 목회도 다음세대도 살아 난다’고 강조했다.

2부 후원자의 밤은 사회 권 캐더린 목사, 기도 이종명 목사, 사역보고 한준희 목사, 격려사 황동희 목사, 후원안내 박진하 목사, 특송 성음크로마하프 선교단, 현금기도 조상숙 목사, 광고 유원정 간사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 박이스라엘 목사는 “여러분의 섬김과 믿음으로 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105명의 아동들에게 떡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감사하다. 생명을 살리며 희망을 주는 빵과 복음의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배가운동에 도전해 주시고 격려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환영인사를 했으며 황동희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좋은 임원단이 세워졌으니 더 열심히 사랑의 씨를 뿌려 배가 되기를 바란다”며 박수로 격려했다. 모든 순서는 육만호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2023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후원금은 와이주 인디안 부족, 와나쁘레보학교 증축지원 사역에 사용된다.

하루 1불씩 한달 \$30불로 놀라운 일에 동참하려면 홈페이지 (breadngospel.org)를 참고하고 917-677-8555로 문의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뉴욕교협청소년센터, 창립 35주년 기념 음악회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세대”

뉴욕교협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는 12월 3일(주일) 오후 5시 뉴욕기독교교회(시무 고성민 목사)에서 창립 35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청소년센터는 1988년 한인 사회의 지지와 후원으로 설립되어 2세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5년 동안 학교마다 크리스천 서클을 세우며 사역자를 파견하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 이번 청소년센터는 창립 35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예술적인 재능과 창의성을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호섭 목사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의 지도자로 키워내고자 섬기고 있다”며 “청소년 사역은 개 교

회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지역교회, 목사님, 부모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이니 기도와 협력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환영인사를 했다.

최호섭 목사 기도와 김유진 자매 사회로 시작된 음악회는 NY Pillar 핸드 벨의 오픈닝 듀오 (Joseph Jeong, Christopher Jeong), 피아노(Justin Yoo), 클라리넷 5중주의 연주했으며 댄스팀(A01), 프라미스 국악청소년 선교팀의 공연을 선사했다.

음악회 마지막 순서에는 학생들이 모두 나와 ‘오, 참 반가운 성도여 (O Come, All Ye Faithful)’를 다 함께 찬양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이어 뉴욕기독교교회 고성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2023 창립 35주년 기념 음악회에 다함께 마지막 찬양을 하고 있다

합창마을 2023년 크리스마스 연주회

합창마을(The NY Village Voices) 2023년 크리스마스 연주회가 12월 16일(토) 오후 6시,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개최된다.

합창마을(지휘자 이진수)은 이번 연주회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1685-1750)의 ‘은혜, 영광 & 지혜, 감사’(Blessing, Glory & Wisdom), 조반니 바티스타 마르티니(1706-1784)의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Domine adjuvandum me festina), 쿠리노 가스파리니(1721-1778)의 ‘주님을 경배해’(Adoramus Te) 등 바로크 & 고전시대 교회음악 작품들과 칼 젠킨스(1944-present)의 ‘주님을 찬양해’(Cantate Domino), 케이스 햄튼(1957-present)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Praise His Holy Name) 등 현대 교회음악 작품들과 크리스마스 캐럴을 무대에 올린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이희정, 정은진, 김유정, 최인혜, 송지혜, 배정호, 임관순, 우종호 등 전문 성악가들과 손성경, 이진하, 애나 유 등 전문 연주자들이 합창마을과 함께하는 완성도 높은 연주회가 될 것으로 특히 대강절 기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귀에 익숙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함께 노래(Sing-along)하며 기쁜 성탄절을 맞



합창마을 2023년 크리스마스 연주회 포스터

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7년 전 출범한 합창마을은 그동안 퀸즈보로십미오케스트라와 함께 비발디,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루크너 등의 작품들을 협연했으며 뉴욕을 방문한 ‘도교 오라토리오 콰이어’와 함께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추모하는 현대합창곡 ‘Tsubute song’을 초연했다.

합창마을은 뉴욕주 등록 연방국세청(RS) 501(C)7 등록 비영리문화단체이며, 646-732-0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NY Village Voices 합창마을)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뉴저지실버선교회 2024년 정기총회

이사장 김용철 목사, 대표 양춘길 목사유임

뉴저지실버선교회(대표 양춘길 목사)는 2024년 정기총회를 12월 3일(주일) 오후 6시에 뉴저지 새언약교회에서 열고 정관수정, 신임 대표와 이사장 인선, 2023년 사역 및 결산 보고, 2024년 계획 및 예산 등을 처리했다.

1부 예배는 인도 정동화 장로, 기도 이진성 장로, 말씀 유재도 목사, 현금특송 전경엽 장로, 봉헌기도 문성미 권사, 축도 설교자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회의는 의장인 대표 양춘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관을 수정하여 임기 3년의 부대표를 두기로 했으며, 김종국 목사를 부대표로 선출했다. 김 목사는 그동안 맡았던 선교 훈련원장도 겸하게 된다. 또 그

동안 업무처리에서 사무총장과 선교본부장의 업무가 자주 중복된 것을 고려하여 선교본부장 직을 없애기로 했으며, 신임 사무총장으로 정동화 장로를 선출했다.

이사장 김용철 목사, 대표 양춘길 목사를 유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임 인원들을 발표했다.

한편 부대표 김종국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뉴저지목사회는 권기현 목사의 사모가 투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목사회 모든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5천 달러를 모았다. 그리고 이번 뉴저지실버선교회 정기총회에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가 가운데 2천 달러를 모금했다.

동부한인교회 연합 성탄연합 찬양제

“예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

동부한인교회 연합 성탄연합 찬양제가 3일(주일) 오후 5시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최현규 목사)에서 열렸다. 임보희 전도사(글로벌미션 콰이어 디렉터) 사회로 열린 찬양제는 글로벌선교회, 유니온교회, 동부사랑의교회, 글로벌미션콰이어, 선한정지교회, 선한목사교회, 아름다운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가 참가하여 성탄의 계절을 은혜로운 찬양으로 아름답게 수놓았다. 또한 바리톤 이사효 지휘자가 찬조 출연하여 이날 찬양제를 빛내주었다. 이날 찬양제가 열리기 전 드린 예배는 송재호 목사(할렐루야 한인교회, 교협회장) 인사말과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했으며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가 기도했으며 우영화 목사(동부사랑의교회, 전회장)가 ‘그 이름의 비밀(마 1: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우영화 목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

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 예수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이름에 담겨있으며 그 이름은 자기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라 말하며 “성탄의 중요한 핵심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목사는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고 사회개혁가도 성인군자도 아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시다. 죄는 가장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밤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찬양제는 참석자들이 연합으로 ‘할렐루야’를 불렀으며 고태형 목사(선한목사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지저스웨이브 미남서부 기도모임에서 김성욱 대표가 합성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지저스웨이브 미 남서부 기도모임

“북한이 열려야 중국과 아랍이 열릴 것”

지저스웨이브(대표 김성욱) 미 남서부 기도모임이 2일(토) 오전 10시 홀러턴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열렸다. 김성욱 대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불의한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말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이라 말했다. 김 대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민족에게 북한이라는 과제를 안겨주셨다. 특별히 한국교회들에게 북한체제 붕괴 후를 준비하게 하셨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 열려야 중국이 열리게 되고 아랍이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열리게 되면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한국은 이일에 대해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

하게 될 것이며 북한재건에 선봉적인 역할은 미주동포들이 하게 될 것”이라 설명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우리의 기도로 나아간다면 비록 절망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성욱 대표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합성기도를 인도했다. 지저스웨이브는 2018년 한국에서 설립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모임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에서 정기적 집회를 진행해왔고 팬데믹 당시에는 온라인 상에서 20-30명년 아카데미 및 매일 열리는 줌 기도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온라인을 베이스로 하여 20-30명년아카데미를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하는 것과 함께 한국에서 여름과 겨울 오프라인 대규모 성회를 열었다. (박준호 기자)



'A Small Art exhibition for Christmas' 주제의 전시회에서 폴 아트 리 목사가 작품설명을 하고 있다

폴아트리 등 12인 전시회 열어

‘성탄의 계절에 크리스천 작가들의 작품 만나다’

‘A Small Art exhibition for Christmas’ 주제의 전시회가 2일(토)부터 23일까지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AJL아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폴아트리 등 12명의 크리스천 작가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폴 아트 리 목사는 “‘A Small Art exhibition for Christmas’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12

명의 크리스천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아 열게 되었다”라며 “특히 성탄의 계절에 크리스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AJL아트갤러리는 8600 Beach Blvd #201, Buena Park에 위치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동부한인교회 연합 성탄연합 찬양제에서 참석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벵가드대학교 크리스마스 타임 주제 성탄음악회에서 전출연자들이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벵가드대학교 크리스마스 타임 주제 성탄음악회 열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모아 하나님께 드린 음악회”

벵가드대학교(총장 마이클빌스 박사)는 크리스마스 타임 주제 성탄음악회를 1일(금) 오후 8시 세인트 앤드류스 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장재혁 교수가 이끄는 벵가드대학 합창단을 비롯해 케네스 펠릭 교수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를 주축으로 콘서트 밴드, 재즈앙상블, 위싱밴드, 연합앙상블 등 200여명이 출연해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탄음악을 선사했다. 그리고 제프 레돈이 지휘하는 뉴포트하버고 합창단도 찬조 출연하여 이날 음악회를 빛내주었다. 장재혁 교수는 “지난여름부터 교수들이 모여 성탄음악회 방향을 잡고 가을학기부터 앙상블이 연습하게 되었다. 앙상블은 제가 담당해서 연습했으며 오케스트라는 켈 페릭 교수가 담당해서 연습했다”고 말하며 “벵가드대학 학생들의 열정이 고맙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음악회로 만들어져서 감사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인커뮤니티와도 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빌스 총장은 “벵가드 대학교 음악학과가 선사하는 크리스마스타임 음악회는 재능 있는 학생들과 저명한 교수진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울려 퍼질 클래식 및 현대 크리스마스 노래로 구성했다. 벵가드의 성악 및 기악 앙상블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카네기 홀과 링컨 센터의 에이

버리 피셔 홀에서 공연하며 최고의 기독교 대학 음악 프로그램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말했다. 빌스 총장은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최고의 선물을 가져온 것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벵가드의 음악 선물을 여러분께 선물하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저녁 음악회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경험하고, 크리스마스가 상징하는 희망,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희망이 내년에 여러분을 평안하게 지켜 주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은혜로교회 창립20주년 음악회

은혜로교회(담임 김경환 목사) 창립20주년 음악회가 2일(토) 오후 7시30분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교회와 함께하셨고 오늘 음악회를 통해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이번 음악회를 위해 함께 해준 솔리스트들, 앙상블, 지휘자, 그리고 기도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여성중창, 남성중창, 합창등으로 진행됐으며 소프라노 김도희, 신영안, 바리톤 권상욱이 솔리스트로

참여하여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글로리아’, ‘기도’, ‘축복’ 등을 불렀다.

참여하여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글로리아’, ‘기도’, ‘축복’ 등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은혜로교회 창립20주년 음악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부교계 게시판

에브리데이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에브리데이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가 10일(주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예배는 최홍주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며 손창민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한다. ▲ 문의: (818)832-6628

부에나파크교회 창립감사 잔치

부에나파크교회(담임 김성남 목사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는다. 9일(토)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의료잔치를 실시한다. 의료잔치는 가정의학과, 치과, 이비인후과, 종양내과, 무료상담이 있으며, 한방(무릎통증 전문) 서비스가 실시된다. 혈액추가 검사시 각 검사당 \$20을 내야 한다. 이날 오후 7시에는 음악잔치를 열게 되는데 캠프탈(지휘 이수정), 오렌지 앙상블, Seal Beach Guitar Ensemble & Six-tringphil Guitar Ensemble, 다니엘 리가 출연한다. 10일(주일) 오전 10시에는 창립2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날 오후 4시에는 북한선교제미나(강사 탈북자 출신 허남일 그날교회 담임목사)를 갖는다. ▲ 문의: buenaparkchurch@gmail.com

‘메시아 솔리스트 앙상블’ 헨델의 ‘메시아’ 공연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된 ‘메시아 솔리스트 앙상블’(이사장 김라니 목사, 지휘 제갈소망)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헨델의 오토리오 ‘메시아’ 공연을 오는 12월 8일(금) 오후 7시30분에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30여 명의 성악가와 오케스트라가 메시아를 원어(영어)로 공연한다. 챔버 오케스트라(악장 민선명)는 현악과 관악 트럼펫 팀파니 첼발로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 문의: (714)657-6571

파사데나장로교회 제79회 캔들라이트 앤 캐롤스 음악회

파사데나장로교회(담임 최진영 목사) 제79회 캔들라이트 앤 캐롤스 음악회를 8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이날 음악회는 파이프오르간, 오케스트라, 합창, 핸드벨 연주, 청중들과 함께하는 캐롤 싱어롱이 있게 된다. 입장은 선착순 무료 ▲ 주차 및 문의: (213)200-3936

러빙워십&제이어스 찬양콘서트-YESHUA

러빙워십&제이어스 찬양콘서트-YESHUA가 17일(주일) 오후 7시 더 노보 극장에서 22일(금)과 23일(토) 오후 7시 애나하임 그로브 극장에서 열린다. 티켓은 \$30, \$40, \$50 ▲ 문의: (213)357-1565

남가주동신교회 은퇴식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는 2023년 향존직 은퇴식을 10일(주일) 2부예배에서 갖는다. 은퇴자는 △장로: 신영도, 김영규, △안수집사: 박태영, △시무권사: 허영화, 서에스더이다. ▲ 문의: (714)680-9556



효사랑선교회 종강식과 미술전시회가 열렸다. 사진 오른쪽아래 원안은 이날 종강식에서 김영찬 목사가 설교하는 모습

효사랑선교회 종강식과 미술전시회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2023년 가을학기를 종강하면서 미술 클래스가 준비한 전시회도 열었다. 종강식은 학장 정찬군 목사의 찬양인도와 강문수 목사(합창 지도 강사) 기도에 이어 김영찬 목사가 ‘한 알의 밀알(요 12:2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영찬 목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신 주님처럼 존경 받는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어른이 죽어 야 존경받는 할아버지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며 “우리의 가정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면 존경받는 부모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데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 서준석 장로가 수년 동안 헌신 봉사한 강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효사랑 시니어 대학이 지난 21년 동안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강사님들이 헌신적인 봉사로 섬겨준 결과”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엘리스 썸 미술 강사의 전시회 설명에는 많은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그는 “특별히 12주 동안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강사로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며 “그중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분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밝은 얼굴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 오늘은 그분께서 ‘미술 클래스를 통해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해 주며 가르치는 저로서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미술 전시회는 11월 30일 하루 종일 성황을 이루었으며, 멕시코 선교에 후원하는 후원금 전달식도 있었다. (기사제공: 효사랑선교회)



밀알복지재단 '2023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 참여

윤 대통령에게 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온, 재활시설 굿윌스토어 소개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원로목사)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밀알

우 박시은·진태현 부부가 대표로 참석했다.

재단 측은 윤 대통령에게 재단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온(Bridge On)'과 장애인을 매장 직원으로 고용하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굿윌스토어'를 소개했다. 밀알복지재단은 윤 대통령이 기부한 성금을 국내외 소외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권익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장애인권익기금은 밀알복지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손봉호 교수의 생전 유산기부를 통해 설립된 기금으로, 국내 시청각장애인 지원과 아프리카 등 취약국가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쓰이고 있다.

남 사무처장은 "연말을 맞아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랜드재단·할렐루야교회 "신사각지대 안정망 구축"

교회 네트워크 통해 가정밖 청소년·다문화가정 자립 지원

이랜드재단(장광규 이사장)과 할렐루야교회(김승욱 목사)가 29일 경기도 성남의 교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신사각지대 지원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장광규 이사장과 김승욱 목사

비를 지원한다. 자원한 교인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 밖 청소년 밀착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교회는 '집고치미팅' 봉사단을 다문화 취약계층 가정에 파견해 도배와 장판 교체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장 이사장은 "복지 신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서적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할렐루야교회와 협력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재단은 앞으로도 가장 소외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다는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도 "교회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 사업을 이랜드재단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에 전한 사랑의 온기

극동방송, NGO선한청지기

극동방송과 NGO선한청지기가 지난 2일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독거노인을 찾아 성탄 선물을 전달했다. 성탄 선물 전달식에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선한청지기 이사장 이일철 장로와 임직원 외에 박진 외교부장관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함께 독거노인들을 격려했다.

연말 소외계층을 위한 사역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달식에서는 생필품 선물상자 650개와 쌀 3250kg 그리고 연탄 3만 장을 전달했다. 김장환 목사는 독

거노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손수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김 목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우리의 손길을 통해 전달되는 선물을 통해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달돼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일철 이사장은 "매년 이맘때면 구룡마을을 방문하는데, 늘 가슴이 아프다. 길 하나

를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있는 반면, 이곳에는 내 키보다 작은 움막에 사시는 분들과 마주할 때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래서 유독 구룡마을의 겨울은 더 추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열어놓은 독거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구룡마을 전체에 덮이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의 유귀범 주민자치회장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 해마다 갑작한 목사님과 이일철 이사장님이 성탄 전사가 돼 우리를 찾아 주신다"면서 "잊지 못할 큰 은혜에 매번 감동을 받는다. 올해도 찾아와 주셔서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큰 힘이 난다. 무척 감사하다"고 말했다.

극동방송과 선한청지기에서는 같은 날 오전 7시에 중앙양로원에 후원금 1500만원과 쌀 500kg, 떡을 전달했다. 오는 15일에는 수원 쪽방촌 독거노인 550명과 재소자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400여명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회, 방과후 돌봄·성경 교육

한동대VIC센터 돌봄 프로그램 결실

포항장성교회(박석진 목사)는 지난해 8월 B.O.K스쿨(Beginning Of Knowledge·지식의 시작)이라는 이름의 방과 후학교를 시작했다. 교회 안팎의 강사진이 평일 영어·수학, 코딩, 예체능 교육부터 성경적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교육한다.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과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공부를 병행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윤선아 목사는 5일 "다음세대 교

육에 관심이 큰 담임목사님이 방과 후 밖에서 배회하는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돌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이라며 "아이들의 학습효과도 크고,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성교육까지 가능하다 보니 학부모와 아이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이어 "교회학교 활성화로도 성과가 이어지니 서로 윈윈(상생)하는 것 같다. 또 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장성교회가 펼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한동

대 VIC초중등교육지원센터(한동대VIC센터)가 개발한 '초등 방과후 돌봄공동체' 프로그램이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교회 내 다음세대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취지로 개발됐다. 포항장성교회 외에 기쁨의교회(박석진 목사)와 안대교회(배진기 목사), 새벽이슬교회(박성민 목사) 등 지역교회 4곳이 동참하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등장한 계기는 초저출산에 따른 지역 공동체 붕괴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미래도 암울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대 VIC센터가 2018년부터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 영역이다. 급·간식을 통한 '돌봄',



"앞뒤 다른 크리스천 모습 북한이탈주민에게 부정적 영향"

예장통합 '남북한선교통일 정책협의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 총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기다림과 공감'의 선교를 제안했다. 예장통합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남북한선교통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총회에서 정책 문서로 채택된 '북한이탈주민 선교 지침'의 의미와 실천 방안을 함께 나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3만

4000여명에 달한다. 예장통합은 한국교회가 이들을 품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인 선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선교지침을 만들었다. 선교지침 제정에 참여한 김의혁 총신대 교수는 "한국교회가 꾸준히 북한이탈주민 선교를 하면서 맺은 가장 큰 결실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밀어주고 밀어주니...발달장애 방문 치료 '창업' 현실로

2개월간 멘토링 해주면서 대상자 선정, 매월 150만원 지원

교회가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돈만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창업 전문가들이 들어 사업 아이템까지 함께 구체화하며 돕는다. 창업의 첫발을 내딛지 못했던 청년은 3개월 만에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응용행동분석(ABA) 방문 치료 센터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센터에 올 수 없는 발달 장애 아동에겐 치료가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교은(34)씨는 "긴 대기기간으로 힘들어하는 발달 장애 아동, 치료받을 기관이 근처에 없어 고민하는 부모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중단한 가정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권이나 경기도 성남 혹은 화성 중 한 곳을 정해 내년 3월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그의 창업 기틀을 마련해준 곳은 아닌 교회였다. 신씨는 "지난 9월 교회에서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현장에서 9년간 일했지만 사업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3개월간 멘토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을 구체화했다"며 "창업 지원 프로젝트 결과도 잘 나와 꿈에 한 발짝 더 다가

섰다"고 반색했다. 신씨는 최근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김병삼 목사) 청년 창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았다. 총 14팀과 경쟁했는데 창업 교육과 두 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발표회를 거치면서 최종 발탁됐다. 향후 1년간 교회에 매달 150만원을 지원받고, 기업 대표를 비롯해 교수·세무사·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인 '만나 크리스천 리더십센터(MCLC)' 소속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선발 과정에서 이른바 '스펙'은 평가 기준이 아니다. 사무실이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동기와 의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선교의 주도권을 맡기고 한국교회는 이들을 돕는 동역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지침에는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성급한 모습을 자제하고 돌봄과 포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그들은 북한에서 받은 반종교 교육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눈으로 목도하고 몸으로 경험할 때 복음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들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삶 속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도 나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김교수 외에도 정진호 포항공대 교수와 임희국 장신대 명예교수가 강연했으며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등 예장통합 북한선교 단체들의 사업 소개도 이어졌다.

실현 가능성 '수익화 가능성'이 평가 기준이다. 선교·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으면 가산점도 있다. 최종 합격자는 두 달간의 교육과 경합을 통해 선정된다. 모든 서류 합격자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다.

프로젝트 이름은 '밀어줄게 밀어줄게'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 10팀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지난 기수 청년들은 카페 운동센터 재과점 등을 창업하고 꿈을 이어가고 있다. 창업 전선에 먼저 뛰어든 일부 청년들이 수익 일부를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등 선순환 구조도 구축되고 있다.

교회는 내년에도 창업 청년들을 물심양면 지원할 계획이다. 만나교회 담당 사역자인 박의성 목사는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은 했는데 가장 많은 답변이 직장과 돈에 대한 고민이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고민하는 자리에서 교회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밀어줄게 밀어줄게'는 단순히 지원 대상자 선정에만 머물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창업 이후에도 기업에 선교적 비전과 사회적 가치를 배양할 수 있도록 멘토링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종진 목사 12월 부흥성회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연세대학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제 234차 해외성회 (234th Overseas Assembly)

12월(1)미
2(토)미
3(주)미
3(주)미
4(월)~5(화)미
6(수)미
7(목)미
8(금)미

9(토) 정오
10(주) 저녁
11(월) 오전

11(월) 오후
11(월)~12(화)
13(수) 오전
13(수) 저녁
14(목) 오전
14(목) 오후
14(목) 오후

15(금) 오후
16(토) 오전
16(토) 오후
17(주) 저녁

18(월)~19(화)
20(수)~21(목)
22(금)

22(금)~23(토)
24(주) 오후
25(월)
25(월)
26(화) 오후
27(수) 오전
28(목) 오전
29(금) 저녁
31(주) 가정

남서울중앙교회(Elders year-End) Gathering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연세대학교 목회자동문 송년회 남 주관 : 연세동문목회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박형준 목사, 사무총장 이강봉 목사) 장소 : 연세대 백양누리 부천연립교회 주최 : 노혜미부흥사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전주 생별교회(원장 박순자, 원로 최충만 목사) 010-3678-5942
남양주 늘푸른진교교회(이석우목사) 010-2250-4690
서울대학교 ABK 총동창회(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2층 무궁화홀) Benediction
국제신학교(학장 강영준목사) 010-9260-1091
고양시 축복교회(지영희 목사) 010-6374-4855
한미부흥감사대(KJRS)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Special Concert 장소 : 가평공연홀 010-2238-3999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Meeting Ceremony (준비위원장 Jasom Paik) 010-2238-4592
Business Blessing Event
World Gospel Mission Association
서울 강남반석교회(정지훈 목사) 010-8331-3431

18(월)~19(화)
20(수)~21(목)
22(금)

22(금)~23(토)
24(주) 오후
25(월)
25(월)
26(화) 오후
27(수) 오전
28(목) 오전
29(금) 저녁
31(주) 가정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6352-0691
김포 감리교회(조경숙 목사) 010-8222-1992
성탄절 Important Charity
서울 강남순교교회(오승준 목사) 010-9667-5321
귀리 생명성교회(김영준 목사) 010-9260-1091 주최: World 기독교연합회(이성진 목사)
웃음힐링성교회(총재 이웃들 목사) 010-8947-2011
서울 강남반석교회(정지훈 목사) 010-8331-3431
남서울중앙교회(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건국 목사) 02-3411-9191/송구영신속박대안기독교성회

대한예수교중앙교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0(여의도5동) Fax. 024141-7770

선교의 창 (22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격동의 한 세기를 믿음으로 이긴 방지일 선교사

“죽스는 게 두렵지, 닳아 없어지는 건 두렵지 않다.” 한국 교회의 산 증인이자 ‘영원한 현역’이란 별명을 가진 방지일 목사를 생각해본다. 그는 2014년 10월 10일 소천 하셨다. 향년 103세였다. 고인은 당시 10월 14일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유가족과 교계를 대표하는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한국기독교회장”으로 천국환송 예배가 드려졌다. 그는 1911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고방효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선천의 신성 중학교와 평양 숭실대에서 공부한 후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재학 당시 평양대부흥 운동의 중심지이자 길선주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던 장대현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다. 1937년 신학교 졸업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중국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방 선교사는 중국 산둥성에서 1957년 추방되기까지 21년간 선교를 했다. 한국에 돌아온 뒤 서울 영등포 교회 담임목사를 지냈고 1979년 원로목사에 추대됐다. 1972년 예장 통합 총회장, 1976년 기독교보사장, 대한 성서공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몸소 체험하신 고인은 손양원, 한경직, 박윤선 목사와 함께 한국 기독교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의 고결한 발자취를 남기고 간 고방지일 선교사의 인격과 삶과 사역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 제1기 선교사로서 삶과 사역(1938-1957)
방선교사는 1937년 예장 총회의 가결에 의해 중국 선교사

로 파송을 받았다. 이미 부친 되신 방효원 목사가 1916년 선교사로 중국 산둥성에 파송을 받아 선교활동 중이기에 이를 잘 돕기 위해서였다. 당시 는 일제 강점기였다. 일본은 그들이 운영하는 어용단체인 대동아 선교회에 가입할 것을 권했으나 거절하고 순수 복음 활동에 전념하셨다. 그는 당시 다섯 번의 정변으로 인해 술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는 자기 생명 유지도 쉽지 않은 환경에서 중국인 뿐만 아니라 한인교포 난민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다. 19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자 본국 총회에서도 철수 지시를 내렸다. 미국영사관에서도 마지막 철수하는 배에 탑승할 것을 간곡히 권유했다. 그러나 방 선교사는 거절했다. 그는 서양선

안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었다. 방목사의 목회 핵심은 사회봉사나 각종 프로그램에 치우친 행사 보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담백한 목회 그 자체였다. 그는 말씀이 소

교사들이 추방된 어려운 공산당 치하에서도 홀로 남아 중국인 신자들의 신앙을 돌보며 어려움을 함께 하였다. 결국 1957년 중국 당국은 그를 북만으로 추방하려고 하였다. 이때 서방 언론에 그가 중국에 남은 마지막 기독교 선교사라고 알려져 한국으로 간신히 돌아올 수 있었다.

2. 제2기 목회자로서 삶과 사역(1958-1979)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철수한 방선교사는 제 2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서울 영등포 교회를 담임하며 한국교회

외되고 감성에 치우치는 부흥을 경계했다. 진정한 부흥은 오직 말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라고 하셨다.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현미경의 렌즈가 맑아지면서 평소엔 보이지 않던 작은 죄도 찾아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목회는 어떤 기술 보다는 욕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처럼 교인들의 명수대로 하나하나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한 영혼을 소홀히 한 채 오로지 양적 성장을 앞세우는

오늘 다수의 교회에 대한 따끔한 충고이다. 더욱이 주변의 작은 교회를 배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대형교회를 질타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 제3기 지도자로서 삶과 사역(1980-2014)

방목사는 1979년 은퇴한 뒤부터 1년 가운데 절반 정도는 국내·외 집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복음 전파에 앞장섰다. 설교 요청이 들어오면 노구를 이끌고 부르는 곳 어디든 말씀을 전하러 가셨다. 방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늘 안타까움이 많으셨다. “예수님은 교단 만들려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려 오신 교주가 아니

상을 걱정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가?” 말이 들릴 정도로 교회 안에 경쟁과 반목과 분열이 치열한 이 때에 우리 교회는 방 목사의 외침을 경히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방지일 목사의 선지자적 외침

“예배당은 교실이 아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강연장도 아니고 재미있게 듣자는 역사 이야기장도 아니다. 개신교의 본령은 사회공헌이나 복지사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온 힘을 쏟으라는 것이다. 구원 역사에 내 몫은 없다. 내가 할 일은 그 지배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으나 그는 끝까지 서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는 이토록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올곧은 신앙인이었다. 그는 중국이 공산화되며 모든 선교사들이 철수함에도 홀로 남아 중국의 영혼들을 살렸던 참 목자이었다. 방목사는 교회 부흥을 위해 특별한 술수나 이벤트보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목회자였다. 그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대에 나의 킹덤보다 하나님의 킹덤을 의식하며 교회 일치를 바라는 지도자였다. 그는 거실 액자에 “격산덕해(格山德海): 인격을 산같이, 덕을 바다같이 쌓으라”는 의미처럼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탐욕에 물들지 않고 청빈과 내려놓음의 자세로 후배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맺는 말
방지일 선교사는 “달아서 죽을지언정 녹이 나서 죽지 않겠다.”라는 좌우명처럼 천수(天壽)를 다하시기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다 가셨다. 어떻게 100세가 넘음에도 기력이 정정하며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방선교사가 함께 하고 있으면 굳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다. 방 선교사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보내주신 위대한 목자요,



그는 공산치하에서 선교사로서 마지막까지 양떼를 지켰다.
그는 목사로서 술수보다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목회를 했다.
그는 원로로서 하나님의 킹덤을 바라보며 연합적으로 사역했다.

다. 죽으러 오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1937년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 한국 장로교는 하나였다. 1959년 당시 예장이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될 때 우체국에서 사방으로 전화해 말리며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다. 나아가 “믿음이란 투항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 주관과 경험으로 무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무장을 완전히 해제할 때 비로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주의 일에 나를 개입시키지 말고 제거할 것을 요구하셨다. 오늘날 “교회가 세

5. 방선교사에 대한 후대의 시각

방목사는 2013년 국가 조찬 기도회를 인도하셨다. 그 때 박 대통령께서 방 목사님께 의자에 앉아 설교하시기를 권했

선각자였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를 못 잊어하는 것은 어떠한 업적보다 그의 고고한 인격과 청빈한 삶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다. 아직도 그분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것 같다. 이런 분이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사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후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들은 이 시대의 영적 사표인 방선교사를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29강 복된 땅, 가나안 (4)

물, 비는 어디서 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큰 강을 품고 있어서 그 강만 있으면 농사의 염려가 없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비옥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의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키시는 땅(신 11:12)으로 하나님이 적당하게 돌보시는 곳입니다(신 11:14/ 율 2:23).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시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레 20:24/ 민 14:8/ 신 6:3, 26:9/ 수 5:6/ 렘 11:5/ 겔 20:6)이 될 것입니다.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곳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만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기적으로 내려만 주면 살아가는데는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이른 비(11월) 후에 씨를 뿌리고 늦은 비(3월) 후에 거두어 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의 근원인 비를 불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면 '적당하게' 돌보셨고 불순종하면 '기근'으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면 방패와 군사가 되어 주시고 만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주변 나라들의 손에 팔아버리셨습니다(삿 3:8, 4:2, 10:7).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에게는 가나안이 복된 곳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을 징계하시는데 주변 나라들과 내부의 족속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풍요롭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지만 주변을 바라보면 더 풍성한 파라다이스를 꿈꾸면 답답하여 숨이 막히는 곳이었습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므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지만 이들은 징계를 받아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곳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곳이었습니

다. 그것은 세상의 풍성함이 아닌 '하늘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부끄럼

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을 가고 싶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부끄럼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넘쳐도 예수님의 동행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확히 성경 이야기,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여호수아를 앞세워 그 땅을 정확히 갈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왕들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자만에 대한 징벌 (암6:1-14) 찬 212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범이 쓸개, 정의가 쓴 쪽으로 바꾼 이스라엘의 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12) 첫째, 안 일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1)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한 저들의 평안은 일시적이며 결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요셉의 환난을 생각지 않고 자기 탐욕만 채우는 원수의 발아래 떨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 자에게 위협한 것은 수동적,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것이

자만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힘을 의지하는데서 나왔습니다.(13) 우리의 뿔을 우리 힘으로 얻었다고 자화자찬하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자기 신뢰로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영적법칙입니다.(렘 17:5-6) 오늘도 주여, 내 마음을 겸손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화 먼저 의를 구하자 (암7:1-9) 찬 84장

본문에 나온 세 이상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새싹을 싹틔운 황종의 이상에서 약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입니다. 진노 중 긍휼이 남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때문입니다.(히 4:15-16) 둘째, 타오르는 불의 이상에서 바다를 삼킨 불이 땅까지도 사르려는 심판의 맹렬함에 서 뜻을 돌이키심은 선지자의 중보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다. 셋째, 그러나 다림줄의 이상에서 제단을 축약하신 주님은 우상숭배의 죄를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리라는 예언대로 그 나라는 앗스르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보인 그의 의를 세우시는 열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주 안에서 거저 얻은 의를 따라 그 의를 굳게 세웁시다.(마 6:33)

수 소명의 본 (암7:10-17) 찬 323장

주의 부르심은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주의 사역을 결코 할 수 없고 오직 부른 자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부름은 어떠한가? 첫째, 그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초기, 목자며 농부인 아모스를 예언자로 부르자 그는 즉각 응답했습니다.(14-15) 하나님 부르심은 절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원해서 응한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마4:19-20) 둘째,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사역에 대한 부르심도 포함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관한 회개와 경고를 알리는 예언이기에 핍박을 예상했지만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소명 문제가 점점 소홀히 되는 우리 시대에 아모스를 본받아 부르심을 굳게하는 신자가 됩시다.

목 진정한 문제 (암8:1-14) 찬 457장

하나님은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심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알려주셨습니다.(1-2) 무엇이 그들의 문제였습니까? 첫째, 가난한 마음을 잃었습니다.(4) 소자에 대한 경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퍅한 마음을 보인 것입니다. 경건의 분위기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부패한 사회임을 증거합니다. 둘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잃었습니다.(11) 양식과 식수의 기근도 심각하지만 말씀의 기갈

이 더 급함을 아모스는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요 6:63) 말씀을 잘 받는 옥토에 100배의 결실이 약속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경솔히 여기고 안락과 물욕과 염려로 채워진 가시나무 마음이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성경마저도 인간 말로 취급하기 좋아하는 위기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성경목상의 체계로 나아갑시다. (시 1:1-3)

금 회복의 하나님 (암9:1-15) 찬 535장

마지막에 보인 그림 계시는 기둥을 쳐서 문지방을 흔드는 이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움니까? 첫째, 종말론적 경고를 봅시다. 2-4절까지 "내가"라는 말을 6회나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4) 심지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론적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8) 온전히 멸하지 않

겠다는 것이며(8) 황무한 성읍에서 건축하며 들판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14)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뽑을 자가 없는 근본적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15) 우리 구원은 원시 복음(창 3:15)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시고 이루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벧 1:7) 이 약속을 주장하는 자는 복됩니다.

토 부흥의 조건 (학1:1-15) 찬 408장

성전 재건에 불을 붙인 선지자 학개는 참 부흥, 통회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부흥을 어떻게 보여주니까? 첫째, 책망이 있었습니다. 게으름(2)과 이기주의(9) 죄를 지적하며 그 결과로 허무와 절망(6-9), 중단과 중벌(10-11)의 참상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을 따른 책망이 생명 얻는 양약이 됩니다. 둘째, 성실한 청중이 따랐습니다. 12절에 학개의 말을 잘 받은 그들은 여호와 경외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천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참된 경외심을 소유하는 길이었습니다. 셋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절의 "마음의 흥분"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순종으로 임하는 성령의 부흥을 본 삼아 참 부흥을 사모하는 신자가 됩시다.

교회음악 이야기(48)



윤임상 교수
(월미선대학교대학원)

대강절 찬양 "문들어 머리들라"

"This was the most glorious day that I have yet seen"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John Wesley, Journal 25 January 1736.

윗 글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John Wesley 1703-1791)가 1736년 1월 25에 쓴 일기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날 생사의 갈림길 현장에서 동생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와 함께 경험했던 암울한 일을 바탕으로 쓴 일기입니다. 일기를 썼던 그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던 자신들이 거대한 폭풍을 만나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극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채 메시아의 노래를 찬양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열심에 심히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존 웨슬리는 위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의 사건이 "자신들의 제 2의 회심 사건이요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에 증인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존, 찰스 웨슬리 형제는 당시 자신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려던 두 명의 엘리트 출신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존, 찰스 웨슬리 형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그룹은 당시 루터 보다 1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다 화형당한 극히 초라하게만 보였던 체코 출신의 개혁자 얀 후스(Jan Hus 1372-1415)의 후예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1736년 당시로서는 대서양을 항해하던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의 노래,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신앙의 모습은 여실히 달랐던 것을 봅니다. 필자는 올해 대강절(Advent)을 맞이하는 첫 주에 위의 두 부류의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복음을 신뢰하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되는 중요한 예화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는 가장 처음의 절기인 대강절(Advent)은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성탄절(12월 25일)을 전으로 해서 4번의 주일을 지키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며 지켰던 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은 메시아(Messiah) 전체 곡 중에서 천사들의 합창(Angels Choral)으로 표현한 곡으로 천사들이 메시아의 노래를 외치는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곡의 가사는 다윗의 시편인 시편 24편 7-10절을 사용한 것으로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가리키며,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드려 세상을 구원하시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문들어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들릴 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복음으로 인한 소망을 확하게 됩니다.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6)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역사를 읽어보면 현재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 일수록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제국을 개종시키는 일에 불씨를 당긴 사도들, 중세를 건설한 위인들, 노예 매매를 폐지한 영국 복음주의자들, 미국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부흥운동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이 모두가 이 땅에서 큰 족적을 남긴 것은 바로 생각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이 시작되는 올해 대강절 시즌에 필자의 마음에 유난히 경중을 울리게 하는 글은 C.S. 루이스가 이야기 한 "천국에 뜻을 두면 이 땅은 덤으로 달려 오지만 이 땅에 뜻을 두면 양쪽 다 잃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실현하셨던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억하며 진솔한 마음으로 "영광의 왕이요 만군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신앙으로 표현하며 복음으로 인한 참 소망을 갖고 열심히 "문들어 머리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를 외치고 싶습니다.

iyoon@wmu.edu

대강절에 드리는 찬양 가운데 헨델(Georg Fredric Handel, 1785-1759)이 작곡한 메시아 중 2부 "수난과 속죄" 중반에 나오는 "문들어 머리들라"라는 찬양이 가장 대표적인 클래식 찬양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매니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릭터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1:11)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문안드립니다. 케냐는 요즈음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달라와 케냐 실링의 환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차 개솔린도 많이 오르고 설장은 2배로 오르고 다른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현직인의 삶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싱가 신학교
그동안 교장으로 수고하시던 웰링턴 무인데 목사, 부교장 티토 은조모 목사, 그리고 감사 사드락 키텔라 목사가 사임하고 새 교장으로 메리 키코오 목사, 부교장으로 조셉 톨와 목사와, 그리고 웨스터스 키나이 목사, 아벳노고 무티아니 목사가 새로 왔고, 돌카스 무모 목사가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싱가 신학교 강사들이 강의했던 무잉기 분교 신학교는 이번 학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독립을 하기로 했고, 마사이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 세웠던 카치아도 분교는 그만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싱가 신학교일반과정 학생

들은 1학년 7명, 2학년 10명 그리고 3학년6명, 모두 23명이고, 특별과정에는 1학년 7명, 2학년 4명, 3학년 5명, 모두 16명, 전체 학생은 39명입니다. 마싱가 노회, 키디요노 노회, 야타 노회, 마투 노회가 돌아가면서 옥수수, 콩, 기름 등 음식과 학생들 물품들을 주어 도움을 주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이 많아져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는 일반과정과 특별과정 3학년 학생들은 인턴 과정으로 각 교회에서 일해서 학교에는 1학년, 2학년 학생들만 있어서 2학년 구약개론 3, 시가서만 가르쳤습니다. 10월 22일에는 마싱가 노회에 속한 7명의 목사 안수식의 안수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르쳤던 목사가 3명이 있어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이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학교 스태프 하우스의 수도시설, 바닥 공사, 페인트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선생님들이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싱가 살롬 아카데미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은혜 중에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12명의 선생님이 있고, 7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들이 부족하여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책상과 의자 30세트를 만들었고, 학교 채플에 의자가 없어서 긴 의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교 재정이 여의치 못해 월급을 받 밖에 못받아 어려움 중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나머지 받을 재웠습니다. 초등학교 스태프 하우스에 페인트를 못했는데, 방 8개, 욕실 2개에 칠을 하여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케냐의 미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시의 그레이스 아카데미
키시에서 현직인 목회를 할 때 장모로 세웠던 로버트 올리에지가 10월에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저를 영적 아버지라 생각하며 교류해 왔는데 이번에 그레이스 아카데미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학생들이 627명이 되어 교실이 부족하여 증축을 하고자 하여 의논해 왔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후시 증축할 경우를 대비해 기초를 더 깊게 하고 지붕쪽에 기둥을 조금 더 남겨두었습니다. 계속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해 놔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들을 잘 구비하여 진행이 되고 아무런 사고가 없이 잘 지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학교를 세운지 27년이 지나 많은 아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큰 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계속해서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미국에서 케냐로 오고 가는 것이 이제는 힘이 듭니다. 3개월치 약을 사가지고 와야 하고 가끔씩 의사를 만나 검사를 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망 다 마칠 때까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마싱가 신학교의 학생들, 교수들을 위하여
• 마싱가 살롬 아카데미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영,육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크며, 잘 가르치도록
• 그레이스 아카데미의 학교 증축과 선생님, 아이들을 위해서
• 이사야 선교사가 약물치료로 더 건강해지며, 가족의 영, 육 간의 건강을 위해
• 올 한해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사야, 이 애경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국가명 중국
- ▲ 종족명 남부첸동마오 종족
- ▲ 인구 500,000명
- ▲ 종교 민속 종교 95%, 무교 4.8%, 복음화율 0.2%
- ▲ 복음 매체 신약 번역됨(2009), 구약 번역 필요, 복음 녹음 있음
- ▲ 종족 프로파일 남부첸동마오족은 수세기 동안 동족과 뚜렷한 구별 없이 살아왔다. 의복과 절기가 거의 동일하다. 남부첸동마오어는 삼대 마오어 중에 두 번째로 큰 언어이다. 광시 북부에서는 동족어와 좡족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신약 성경이 있지만 현지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성경을 가르쳐 줄 일꾼들도 거의 없다.
- ▲ 기도제목
 1. 남부첸동마오어 신약 성경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되고 잘 사용되도록
 2. 말씀을 가지고 전도와 양육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워 주시도록
 3.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구약 성경 번역을 시작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선교 편지

케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상한 심령의 탄식하는 기도에 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케냐에서 문안드립니다. 케냐와 마라켓 부족, 그리고 포켓 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죄와 어두움에 놀려 포로 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선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이 편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포할 때에 한 청년은 주머니에 있던 마약을 꺼내서 버리고 발로 짓밟고 회개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 다음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날, 전도 집회 가운데 복음을 집중하여 귀 기울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케냐 영혼들의 마음의 탄식과 소원에 또한 귀 기울이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입니다. 지난 11월 5일까지 저희는 3시간 떨어진 난디 부족 지역에서 제자훈련을 하였습니다. 마라켓 부족지역의 신학교육과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시간을 겨우 만들어가며 왕복 6시간을 다닐 때는 고단함도 있었지만 3개월 만에 1차 제자훈련을 처음 마친 25명의 난디 부족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사역지 사정으로 그리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또한 이 편지를 통하여 여러분께 운유가 늘 건강하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선교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아프리카 케냐를 위해 동역해주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지에서 또 뵈겠습니다.

가족 이야기
2010년 처음 케냐에 올 때는 다섯 명 가족이었는데 첫딸 기쁨이가 케냐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먼저 미국으로 가고 다음엔 둘째 사랑이가, 지금은 막내 운유만 가족사 학교에 있습니다. 운유도 2년 후에는 대학을 미국으로 갈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운유가 아파서 항생제를 투여하던 학교 약호실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8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 당

- 기도제목**
1. 기도해주시는 비가 옵니다. 할렘루아!
 2. 신학교육과 제자훈련 통해 지역교회들이 부흥하도록
 3. 11/29-12/9 포켓 의료선교와 팀을 위해
- 윤진수 윤미숙 선교사

멕시코 교도소 사랑의 담요 보내기
Jesus Mexico (대표 최재민 선교사)는 매해 겨울철 멕시코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담요 보내기를 실시한다. Jesus Mexico는 많은 재할원들과 여러 교도소들, 캐러밴들에게 영화 상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랑의 담요 후원금을 보내실 곳은 / 주소: Jesus Mexico: 20501 Anza Ave. #23 Torrance, CA 90503
문의: 최재민 선교사 (213-675-7575)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욱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세례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57-9199 12-25 Clinton St, White Plains, NY 111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례기도: 오전 05:30 성경공판: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ikcb.org 14 Green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갯세마니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 (월-토)</p> <p>Tel: (516)205-2004, www.gnyk.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 (Fax: 경음), (917)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양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 (월-토)</p> <p>Tel: (516)387-9940, 9942(E)M,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p> <p>Tel: (718)706-0100, www.nyo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p>	<p>뉴욕효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5:55 (월-토)</p> <p>Tel: (718)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9th St, Hackensack, NJ 07601</p>	
<p>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와 화-토 오전 5:30</p> <p>Tel: (718)559-0691, www.joyfulchurch.org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p>	<p>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양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학교예배: 오후 6:00 수요가나예배: 오후 6:00 새벽 예배: 오전 5:45 건교인특별사역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229-2858, www.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세례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p>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준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00 포아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a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p> <p>Tel: (718)896-4040, www.kap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p>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6:00 (월, 수, 금, 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ie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305-010</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40</p> <p>Tel: (52)33-3507-4111, hani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p>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00 수요예배: 오전 9:00 7시45분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안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 (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n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 담임목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신앙 에세이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탕자의 비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여 집을 나간 후 방탕한 삶을 보낸 후에 결국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보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이 더 잘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등이 굽고 눈이 일그러진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 늙어간 아버지, 철없이 집을 나가 온갖 고생을 다 겪은 아들을 생각하며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노인처럼 되어 버린 아버지. 그래도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에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리는 아버지. 팀 켈러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죄인 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가슴에 피멍이 들어 버린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자신을 다 쏟아 버린 탕부 하나님.

우리는 이 주님의 가슴을 사랑이라 부르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주님의 이 가슴을 품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무수한 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위대한 업적을 쌓은 세상의 영웅에 멈추지 않습니다. 험겨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풍랑 거센 바다나 막막한 광야 한복판에 서 있어도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힘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각자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걸작품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향기나는 봄꽃뿐 아니라 비어 있는 겨울 하늘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침 햇살을 맞을 때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호흡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설렘으로 가슴이 차오릅니다.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침묵의 시간이 찾아오고 그 침묵의 세월 위로 겨울바람

이 불어옵니다. 언젠가 바람을 타고 침묵의 들판에는 눈이 내릴 것입니다. 그 눈 아래 얼어붙은 대지에는 여전히 숨을 고르고 있는 꽃이 멀지 않은 봄에 피어날 순간을 기다립니다. 매 순간 그 무엇으로 분주하게 돌아가는 삶을 잠시 내려놓고 12월에는 자신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체통에 넣는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게 들려주는 따스한 글을 써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조금 더 소중하게 돌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차가운 겨울에도 따스한 봄의 노래가 들려올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으로 얼룩진 삶이라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 잘 해내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너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preachchrist@kcpc.org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도론포서부장로교회)

문제를 기회로 삼아라

살면서 "문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문제'(問題)는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물음, 많은 사람의 관심, 어떤 사물과 관련된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논쟁 또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것을 뜻할 때 사용됩니다. 흔히 귀찮고 어렵거나 골치 아플 때, 문제(problem)가 생겼다고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문제라고 한숨짓는 소리가 들립니다. "코로나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경제 문제, 지식 문제, 건강 문제, 성격 문제, 친구 문제, 이성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환경 문제, 동성애 문제, 마약 총기 문제, 이혼 문제, 저출산 문제..." 끝도 없습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삶 자체가 문제 덩어리 같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가 문제다. 설교가 문제다. 당회가 문제다. 행정이 문제다. 찬양대가 문제다. 건물이 문제다. 세속화가 문제다. 헌금과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 일꾼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안 보이는 것이 문제다. 이기적인 생각이 문제다. 장소가 문제다..." 세상과는 달라야 할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생각없이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별 문제가 아닌 것을 무조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사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낙심과 불안, 두려움과 염려, 절망과 의기소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제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모세에게는 홍해, 다윗에게는 골리앗, 다니엘에게는 사자굴, 바울에게는 유라굴로 광풍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다.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돌파하여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문제 삼지않고, 사명으로 여기고 부활로 승화시켰습다. 구원의 통로로 만들었습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꿉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고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고 회생합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직니다. 문제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가 됩니다. 은혜 가운데 문제를 성숙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로새서 1:24)

bible66@gmail.com

베드로 진서 11

Right

몇 해 전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이들이 부모님 주일에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했다. 조금은 투박하다고 생각하는 컬러와 모양의 커피 잔이었다. 그냥 컵이구나 했는데

컵을 돌아가면서 쓰인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내게 준 컵에는 Mr.Right 였고 아내의 컵에는 Mrs.Always Right 였다. 영어 단어 자체를 번역한다면 아빠는 언제나 올바르게

옳은 결정을 내리는 자이고 엄마는 모든 데서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란 것이다.

그것은 컵을 디자인하고 제작한 분이 남자와 여자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생각해 보면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 모두가 바른 길 바른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Always 라는 단어가 아닐까? 인간이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스스로 늘 자신의 부족을 먼저 인식하고 살아야하며 그에 따라 말과 행동이 혹은 실수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타내야 할 터인데 어쩌면 Mr.Always Right 도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만이겠는가. 어디 가정에서만 그렇겠는가.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자신의 위치나 믿음생활의 경력이 자신을 Right의 존재로 이끌면서 결과적으로 Always Right를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제직회나 당회가 대립이 되어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았는가.

revpeterk@hotmail.com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